

## 목 차

수메르와 이집트 문명 .....최 몽 룡 (서울대학교 교수)..... 1

인간과 문화 .....김 광 익 (서울대학교 교수)..... 27

문화론 철학 .....전 경 수 (서울대학교 교수)..... 33

실크로드 미술문화 .....권 영 필(상지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예종 교수)..... 59

인류문명과 예술 .....우 성 주 (전주대학교 교수)..... 71

# 수메르와 이집트 문명

최 몽 룡 (서울대학교 교수)

## 1. 수메르 문명

도시, 국가와 문명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함께 세계 최초로 나타난 문명은 수메르(기원전 3100년-기원전 1720년까지 우르 3왕조의 존속)에서부터 시작한다.

농업의 발생은 레반트, 아나톨리아와 자그로스 산록의 세 지대에서이다. 그 중 수메르는 비옥한 반월형지대라고 불리우는 자그로스산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메르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연안에서 발생한 세계 최초의 관개문명이다. 이는 나투프와 카림 사히르 유적에서 보이는 기원전 10000년에서 기원전 8000년경의 초기농경과, 그 다음의 자르모, 제리코와 차탈 휘윅유적이 나타나는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5000년의 정착농경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에 나타나는 관개농업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편년상 마지막 문화 단계의 하나인 우르크기(기원전 3500년-기원전 3100년)가 되면 앞선 시기들과 구별되는 도시중심지가 뚜렷이 나타난다. 우르크란 이름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유적으로부터 따왔는데, 기원전 2000년대 초기에는 수메르 문명의 5대 도시중심지중의 하나로 점토판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중요성은 문명의 발생지보다 오히려 기원전 13세기경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율법사들에 의해 바빌로니아에서 쓰여 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구약성서(창세기 16-25장)의 무대를 이루는 것에서 찾아지기도 한다. 즉 아브라함의 배다른 두 아들인 이삭(아브라함이 99세 때 90세의 부인 사라 또는 사라에게서 얻음: 유태인)과 이스마엘(아브라함이 86세 때 부인 사라의 이집트 몸종인 하갈에서 얻음: 회교도인)이 각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아랍제국과의 분쟁의 시작이 싹트게 한 곳이 바로 이 곳을 포함하는 근동지방이다. 이는 레반트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말기(기원전 2000년-기원전 1200년경) 북쪽의 카나아이트(가나안, Canaanites)와 남쪽의 필리스틴(블레셋, Philistines)과 이스라엘리트(Israelites)문화들에 비유될 수 있다.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기는 이집트 신왕조 중 람세스 II세 때인 기원전 1263년경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은 레반트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에 서 말기사이인 기원전 17세기경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끈질긴 전통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4년 후 對 로마항전이 벌어진 서기 74년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의 지사 프라비우스 실바(Flavius Silva)의 10여단에 의해 공격당하고 항전대원 모두 자살로 마감한 死海근처 마사다(Masada)요새(이스라엘의 헤롯왕에 의해 기원전 37년-기원전 31년에 축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를 구라파와 비교하면 구라파에 LBK(Linear Band Keramik) 문화가 있다.

다뉴브 I 문화(Danubian I Culture)라고 불리우는 이 문화는 유럽 중앙과 동부에서 기원전 5000년대부터 쉽게 경작할 수 있는 황토지대에 화전민식 농경(slash and burn agricultural cultivation)을 행하였고 또 서쪽으로 전파해 나갔는데, 이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기의 문양이 우리의 빗살문(櫛文/櫛目文)토기와 유사하여 “線土器文化(Linear Pottery culture)”라 한다. 이것의 獨譯이 Kammkeramik(comb pottery)으로 번역하면 櫛文(櫛目文)土器 즉 우리말로는 빗살문토기이다. 일찍부터 이 문양의 토기들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빗살문토기의 기원과 관련지어 주목을 받아왔다. 이후에 “Corded ware(繩文土器文化)”와 “Beaker cup culture”(비커컵 토기문화)”가 유럽의 북부독일 지역과 남쪽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럽을 휩쓸었다. 印歐語(인도-유럽어)를 쓰며, 폴란드, 체코와 북부독일의 비스툴라(Vistula)와 엘베(Elbe)강 유역에 살던 繩文土器文化(Corded ware culture)에서 기원하여 기원전 2400년-기원전 2200년경 동쪽으로 유라시아 고원으로 들어가 쿠르간(kurgan)봉토분을 형성하던 스키타이(Scythia)종족이나 남쪽으로 그리스에 들어간 아카이아나 도리아(Doria)족과 같은 일파로 생각된다. 그 이후 “Urnfield culture(火葬文化)”를 지난 다음 할슈타트(Hallstatt)와 라테네(La Tène)의 철기문화가 이어졌다. 그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Etruscan에 이어 로마로, 그리고 서기 476년경이면 게르만, 고트, 골, 훈, 롬바르드(Lombard) 등의 異民族이 세력을 팽창해 서로마제국의 滅亡을 가져오게 된다.

또 이곳에서는 수메르에 이어 아카드(기원전 2325년), 바빌로니아(기원전 1830년-기

원전 700년), 앗시리아(기원전 1365년-기원전 558년)와 페르시아제국(기원전 559년-기원전 331년, 아케메니드 왕조)들이 연이어 나타나 동양문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마지막의 페르시아제국이 기원전 490년, 480년과 479년 그리스와 벌린 마라톤(이 전투에서 Pheidippides 페이디피데스란 連絡兵에 의해 勝戰消息이 전달되고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됨), 사라미스와 플라타이아이(Plataea) 전투에서 패함으로 그 전통이 처음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란에는 메디아(Medes, 기원전 708년-기원전 550년), 아케메니드(Achemenid, 기원전 559년-기원전 331년), 파르티아(Parthia, 기원전 247년-서기 224년)와 사산(Sassan, 서기 224년-652년)의 네 왕조가 들어섰다. 아케메니드 왕조(기원전 559년-기원전 331년)는 키루스(Cyrus, 기원전 580년-기원전 530년: 바빌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인들을 해방시켜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왕 메시아로 불리 움)-키루스 2세-캄비세스(Cambyses) 2세-다리우스(Darius, 기원전 550년-기원전 486년)-크세르크세스(Xerxes, 기원전 510년-기원전 465년)-아르타 크세르크세스(Artaxerxes, 기원전 465년-기원전 424년)-다리우스 3세(기원전 380년-기원전 330년)로 왕위를 계승하다가 다리우스 3세가 기원전 331년 7월 구아가메라(Guagamela)전투에서 알렉산더대왕에게 패함으로서 마케도니아제국(기원전 338년-기원전 146년)에 합병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도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3100년	수메르문명 탄생
	2600년	우르 제1왕조 탄생, 우르왕묘 건설
	2500년	췌기형문자 사용
	2370년/2325년	사르곤왕의 아카드왕국 탄생(샘어 사용)
	2060년	우르 3왕조 탄생(아바르기왕의 부인 푸아비 또는 수바드 왕비릉 발견)
		리피트 이시타르법전이 만들어짐(기원전 1934년-기원전 1924년)
	1830년	바비론(하무라비)왕조 시작
		하무라비법전이 만들어짐(기원전 1792년-기원전 1750년)
	1500년	미타니(Mitanni)왕국의 시작(기원전 1500년경-기원전 1370년경), 수도는 Wassu Kanni임, Hurri족, 인구어 사용
	1595년	히타이트제국의 시작

1365년	우바리트 1세의 아시리아(앗슈르 샘어 사용)왕국의 시작
기원전 1263년	모세의 출애굽기(Exodus)
기원전 11-10세기	Saul-David-Solomon(기원전 957년, The Holy Temple을 건립) 솔로몬와의 사후 Israel(북, 수도는 사마리아 Samaria)과 Judah(남, 수도는 예루살렘 Jerusalem)로 분리. 기원전 720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기원전 722년-기원전 705년 재위)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사마리아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감
700년	바비론시가지의 파괴
689년	Sennacherib(기원전 704년-기원전 681년) 아시리아왕, 바비론 침공, Nineveh 수도 확장
682년	Nebchadnezzar(Nebuchardrezzar, Nabu-kuddurri-usur, 기원전 605년-기원전 562년) Neo-Babylon을 세움. 기원전 586년 Jerusalem을 2회째 공격하여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감. 이들은 바빌로니아를 공격한 Persia의 Cyrus(기원전 559년-기원전 530년)대왕에 의해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감
668년	앗슈르 바니파르의 이집트(햄어 사용) 테베시 공격
539년	신바비로니아의 멸망
558년	페르시아(인구어 사용) 아케메니드 왕조의 시작(기원전 559년-기원전 331년까지)
516년	다리우스대제에 의해 베히스툰비가 세워짐
490년	마라톤 전투(Pheidippides에 의한 마라톤경기의 기원)
480년	사라미스 전투
479년	프라타이아이(Plataea) 전투
332년	마케도니아왕국(기원전 332년- 기원전 304년)
331년	구아가메라(Guagamela) 전투에서 알렉산더대왕에 의해 다리우스 3세가 패함, 수도 파사르가데(Pasargadae), 수사(Susa),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와 크세르크세스(Xerxes)궁이 파괴됨
330년	다리우스 3세 부하에 의해 암살당함

323년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56년-기원전 323년) 헬레보래 중독 사함
304년	프톨레마이오스왕국(기원전 304년- 기원전 30년)
31년	안토니우스(크레오파트라와의 연합)와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대제, 기원전 27년-서기 14년)와의 악티움해전
서기 224년	아케메니드(기원전 559년-기원전 331년)와 파르티안왕조(기원전 247년-서기 224년)를 거쳐 사산왕조 시작(서기 224년-651년)
571년	마호멧탄생(571년-632년, 62세), 651년 7대 칼리프 오스만의 코란(Koran, Qur'an, Quran)편찬위원회에서 오늘날의 코란 경전이 완성됨
395/476년-1453년	동로마제국(Byzantine Empire)
800년-1806년	신성로마제국(샤를마뉴 1세, Holy Roman Emperor)
1299년-1922년	오스만 터키(Ottoman/Othman Empire, Osman Turk)
1977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취임(7월 17일)

자그로스 산록의 비옥한 반월형지대(fertile crescent)의 초기의 농경단계를 지나 식량 생산을 위한 정착단계에 이르면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에 따른 관개농업이 필수적이 된다. 그것들은 고고학유적으로 움 다바기야(기원전 6500년-기원전 6000년)-하순나(야림 테페 I, 기원전 6000년-기원전 5250년)-사마라(텔 에스 사완, 기원전 5500년)-하라프(야림 테페 II, 기원전 5500년-기원전 4700년)-우바이드(기원전 4500년-기원전 3500년)-우르크(기원전 3500년-기원전 3100년)의 여러 단계를 지나 수메르 문명기인 켈데트 나스르기(기원전 3100년-기원전 2900년)가 된다.

이때가 되면 주거단위가 마을(village)-읍(town)-도시(city)의 순으로 발전해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이 급격히 증가한다. 토기는 기원전 7000년 간지다레(Ganj Dareh)유적에서, 그리고 최초의 금속은 이미 샤니다르(기원전 8700년), 차이외늬(기원전 7200년), 알리 코쉬(기원전 6500년), 차탈휘윅(Çatal Hüyük, 기원전 6500년-기원전 5650년), 하순나(Hassuna, 기원전 6000년-기원전 5250년)유적 등지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문자의 출현과 기념비적인 건물양식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구리에 아연, 주석이나 비소를 가해 청동기를 제작하는 복잡한 야금기술(구리는 1086도, 주석은 232도,

납은 327도에서 용융됨), 인구증가에 따른 단위 소출량의 증가를 위한 관개농업의 시작, 사회계층과 직업의 분화에 따른 주요 공공건물의 건립이 눈에 띄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앞선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에 이은 청동기시대의 도시혁명이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문명이 처음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Leo Oppenheim처럼 지리적인 개방체제(open system)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오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요소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 즉 수메르 문명 발전 직전의 단계로 이야기되는 우르크는 성서에 보이는 에레크로, 이곳에서는 지구라트라는 계단식 사원의 발생, 인장의 제작과 초기의 췌기형(설형)문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원은 신정정치를, 인장은 재화의 소유권, 민족의 동질성과 아울러 무역관계를 입증해주고, 그리고 췌기형 문자는 인부의 명단, 재화, 영수증의 거래와 소유주를 기록했던 기능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우르크는 당시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농경에서 얻어지는 잉여생산물을 저장하는 창고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재분배경제의 행정중심지였다. 따라서 이러한 우르크기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이 켈테트 나스르의 수메르문명이라 할 수 있다.

설형문자의 해독은, 이란 케르만샤-하마단 길옆 베히스툰 또는 비소툰(Bisotun)바위에 아케메니드왕조의 3대왕인 다리우스대제(기원전 521년-기원전 486년)에 의해 기원전 516년 설형문자, 옛페르시아어, 엘라마이트어와 바비로니아어로 부조의 형태로 새긴 비가, 로린슨(Rawlinson, Lt. col. Henry Creswicke)에 의해 1835년-1847년 조사)에 의해 관독됨으로 가능해졌다. 이로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설형문자를 통해 그 연구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었다.

수메르문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중요한 지역들과 문화 접촉을 해온 국제화된 고고학적 증거를 보여준다. 또 원통형도장에 묘사된 종교와 세속적인 주제들은 동일하며, 야금술 예술 문자 관료체제에 있어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초기의 신정정치(theocracy)에서 군주 또는 왕권정치(secularism)로 접어들면서 수메르는 점차 국제화시대를 개막하고 현재의 이란 서남부에 중심을 둔 엘라마이트 문명(수도는 후일 아케메니드 왕조의 수도가 된 수사)과 활발한 접촉을 가졌다. 이는 엘라마이트 문명권에 속하는 이란 고원의 테페 야야, 시알크, 사하리 속타, 히사르 등의 유적에서 켈테트 나스르의 도장이나 점토판 문서의 발견으로 입증된다. 또 당시 문서

에 딜문(바레인: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는 성서의 에덴동산으로 추정, 이락의 쿠르나도 후보지중의 하나임,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은 페르시아만으로 된 바스라 항구 근처 바다 밑의 계곡설도 있음), 화이라카(아라비아), 그리고 마칸(Markan)과 델루하(인더스)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메르는 멀리 인더스 지역과도 지상 교역(해상교역의 경우 현재의 바레인과 봄베이시 북쪽 캄베이만 위의 로탈과 카하하크라 강구의 돌라비라 항구사이의 직무역임)을 하였는데, 교역의 증거품으로 녹니석(綠泥石)제 접시, 유리(청금석, lapis lazuli)와 홍옥수(carnellian) 등을 들 수 있다. 수메르문명은 이집트와도 교역을 하였는데 기원전 3100년경 나카다의 전왕조 무덤에서 사냥,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 사자와 싸우는 영웅 등의 주제가 묘사된 메소포타미아지방에서 유래된 유리제 인장과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지구라트(ziggurat)사원을 본뜬 제1왕조의 파라오인 아하(Aha)왕의 마스타바식 무덤구조가 이를 입증한다. 특히 아비소스에 있는 아하왕의 무덤에서는 송진과 뼈 조각이 묻은 천이 나와 이집트는 이때부터 미라제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수메르문명은 세계최초의 문명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관개 농업에 기반을 둔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의 하나로, 엘라마이트, 인더스 그리고 이집트와 교역을 가지면서 국제화하였다. 따라서 수메르문명의 발전은 청동기의 제작을 위한 구리나 주석과 같은 광물자원이 빈약한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개농업으로 얻어진 잉여생산물인 보리, 밀, 직물과 건어물을 주위 산간지역과 적극적인 교역에 의해 생겨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수메르문명은 관개농업, 집약농경, 청동기제조와 야금술, 바퀴달린 마차(전차), 축력의 이용과 재분배경제에 의해 밀받침된다. 또 그림문자에서 발전한 쉼기형문자와, 아누(하늘신), 엔키(甘露신과 지혜의 신), 에닐(토지신), 아나(달의 신), 에안나(사랑의 신)와 같은 다신교(polytheism)의 만신전, 초기의 제사장이 다스리던 신전정치에서 군사력과 요새화 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왕이 통치하는 후기의 세속왕권에로의 점진적인 발전, 법에 의해 다스리는 왕의 존재, 그리고 에리두, 라가쉬, 우르크, 니푸르, 우르와 같은 도시간의 끊임없는 경쟁, 무역을 통한 시장경제, 마지막으로 도시중심과 관개수로에 의한 교통망의 발전도 수메르 문명의 요소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강과 주위 환경에의 적응, 기술의 발전과 생산, 무역, 종교, 정치와 같은 복잡한 사회조직의 발전 등이 세계 최초로 발생한 수메르 문명이 탄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 기원전 2500년경 우르크를 지배했던 왕인 길가메쉬의 폭정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신인 아누가 창조하여 지상에 내려 보낸 하늘의 숫소인 엔키두와 길가메쉬와의 싸움과 그 결과 생과 사의 기로에서 지하세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아카드어로 쓰인 길가메쉬의 서사시(기원전 668년-기원전 727년에 아시리아를 통치했던 아슈르 바니팔왕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으로 수메르의 “노아”인 바비로니아 홍수의 생존자인 우트나 피시탐의 이름도 나옴)는 수메르문명의 중요한 유산의 하나이다. 그리고 1927년-1928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오나르드 울리경(Woolley, Sir Leonard, 1880년-1960년)에 의해 발굴되어, 적어도 80명 정도가 순장(관요 여자종 2, 하프연주자 1, 썰매 옆 남자 2, 무덤 속 부인 10, 그리고 묘입구에 보초 5명등 모두 74명이 순장된 것으로 추정됨)되고, 또 금·은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수의, 나무썰매, 하프, 머리장식과 금은제의 용기들을 포함한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어 세인의 이목을 끈 기원전 2600년경의 아바르기왕의 부인인 수바드(푸아비) 왕비의 석실묘를 비롯한, 우르 왕립 공동묘지(기원전 2800년경부터 존속한 Royal Cemetery) 또한 수메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그리고 수메르에서 페르시아까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문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쓰고 있는 暗殺을 의미하는 단어인 assassination의 어원은 서기 1090년 페르시아산의 독수리 요새에 은거하고 있던 모하메드파의 이스마일리안 비밀결사 단체의 지도자인 올드맨(old man)과 그의 명령을 받는 아들인 하산 이븐 알 사바(Hasan ibn-al-Sabbah)가 만든 것으로, 대마초와 같은 하시쉬 라는 환각제를 미끼로 젊은 사람을 모아 서기 1095년 이후 십자군전쟁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목적에 적극 이용하였다. 그것이 최근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의 테러단체에 까지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메르문명의 멸망 중의 하나는 기원전 2350년경부터 약 150년간 과다한 관개농업의 결과로 토양에 염분이 급증하고 地味가 枯渴된데 있다고 한다.

## 2.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하천문명 혹은 관개문명의 하나인 이집트는 초기왕조의 제 1왕조가 성립하는 기원전 3100년경에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집트문명의 발생에는 아시아인의 침입, 나일강가의 관개농업,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무역, 祭式과 행정 등이 그 원인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Ferdinand Braudel이 언급한 지리적 획일성(geographical uniformity)나 개방적 환경(open system)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여 진다. 즉 이는 광활한 충적평원(alluvial plains)에서 중앙집권화 된 국가가 탄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집트문명의 발생 전에 점차 증가하는 권력의 제도화, 부와 신분의 차이, 노동 전문화, 시장경제의 형성, 군사력의 증강, 귀족이나 상류층의 부와 지위의 강화와 도시국가의 발전 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는 파라오라는 神聖 王權, 지리·정치적 통일과 상형문자체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제 1 왕조의 파라오인 메네스(나머 혹은 전갈왕)에 의해 나일강의 상류(남쪽)와 하류(북쪽)에 독립해 있던 이집트의 통일(상하 이집트의 통일은 기원전 2993년에 이루어졌다는 설도 있음)이 이루어졌다.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다. 이러한 기후 환경이 남쪽에 의한 이집트의 통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환경을 이집트문명 발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삼기도 한다. 이것은 수메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세계 두 번째 문명의 탄생이다. 이집트문명의 탄생은 나일강 유역의 관개농업과 수메르와의 장거리무역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문명은 아비도스, 멤피스, 히에라코노폴리스(또는 히에라콘폴리스), 기자, 아마르나, 테베(룩소르), 타니스(Tanis)에 이르는 성벽이 있는 각 왕조의 도읍지를 비롯하여, 파피루스, 혈연이나 재산권과 같은 간단한 기록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기원전 3100년 전의 초기상형문자뿐만 아니라 신전, 피라밋, 미라, 1799년 로젯타 비석의 발견, 그리고 1922년 투탄카멘 왕묘의 발굴에 이르기까지의 고고학자료로도 유명하다. 수메르를 포함한 근동 지방의 아카드, 바빌로니아, 앗시리아와 페르시아 문명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집트지역이 세계 여타 지역으로의 문화전파 기원지가 되었다. 특히 이곳이 유럽문명의 진원지로 주장되어 왔다.

고고학의 발달사는 진화론(evolutionism)-전파론(diffusionism)-수정전파론(modified diffusionism)-체계론(systems theory, 생태학의 접목: 고고학에 생태학을 접목시킨 학자로는 Willam Sanders, Julian Steward와 Leslie White를 들 수 있다.)-신고고학(new archaeology)-후기과정고고학(post processual archaeology)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설 상 이집트는 진화론(Edward Tylor와 Henry Lewis Morgan이 대표적임: 인류의 진화는 savagery-barbarian-civilization의 순서로 이루어짐)의 뒤를 이은 문화전파론(Grafton Elliot Smith가 대표적임, 그의 제지는 Raymond Dart와 Davidson Black임)과 수정전파론자(Vere Gordon Childe가 대표적임)들의 중요한 출발지가 되어 왔던 것이다. 즉 이집트는 “태양의 아들” 또는 “태양 거석문화”의 전파지로 불리어 왔다. 이것이 후일 “수정 방사성 탄소 연대”가 새로이 개발됨에 전통적인 편년체계가 몰락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가설이 뒤집어 지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기원전 2600년경에 처음 세워졌던 이집트의 피라밋(조서왕의 생물연대는 기원전 2686년-기원전 2613년경으로 그의 피라밋은 기원전 2613년 전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됨)을 거석문화의 하나로 보고 이 거석문화에서 전파되어 유럽 거석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추정되어 왔다.

거석문화에는 지석묘(고인돌, dolmen), 입석(선돌, menhir), 환상열석(stone circle, 영국의 Stone henge가 대표), 열석(alignment, 불란서의 Carnac이 대표)과 집단묘(collective tomb: 가. 羨道<널길>가 있는 묘 passage grave(또는 access passage, 영국의 Maes Howe Chambered Barrow가 대표적임), 나. 연도가 없는 묘 gallery grave, 또는 allé couverte)의 크게 5종 여섯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들 거석문화의 대표 예들은 영국 Avebury의 Stonehenge, Cornwall의 Porthole, 스웨덴의 Sonderholm, 스페인의 Los Millares, 영연방인 Malta의 Tarxien, Gian Tija(Ggantija, Gozo), Mnajdra, Hagar Quim(Hagar Quimand), 프랑스 Brittany의 Carnac, Locmariaquer, Morbihan, Dissignac, Gavrinis와 아일랜드의 Newgrange, Meath, Haroldtown, Punchtown, Knowth 등이다. 특히 말타(Malta)와 이웃 고조(Gozo)섬에는 다른 곳들의 거석문화와는 달리 특이한 3~6葉型의 반원형 회랑(apse)들을 가진 사원(temple)이 24개소나 있으며, 이들은 기원전 3500년-기원전 2500년에 속한다. 이들은 유럽의 거석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거석문화의 하나로 불리어진다. 또 이들 사원들은 Minorca, Majorca와 Ibiza 섬이 포함되는 스페인령 Balearic islands (발레아레스 제도)의 기원전 2000년경의 Talayot문화의 거석으로 축조된 사원들과도 비교된다. 그 중 문화전파의 증거가 되었던 영국 윌셔 솔리스버리에 있는 환상열석인 스

톤헨지(Stone henge)의 경우 스튜아트 피고트(Stuart Pigott)의 발굴시 기원전 1900년, 그리고 그에 이은 Richard J. C. Atkinson의 발굴자료의 방사성탄소연대는 기원전 2350년, 그리고 마지막 Collin Renfrew의 보(수)정방사성탄소연대는 기원전 2750년이 나와 이집트 조서의 피라밋 축조연대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4 ton 무게의 청석은 북서쪽 217km 떨어진 Preseli 고원에서 채석한 것으로 오크나무로 만든 통나무 배로 운반하였다. 최근 이곳에서 북동쪽 460m 떨어진 Avon강옆 Durrington Wall 유적에서 기원전 2600년경 스톤헨지의 축조자들이 살던 마을이 Mark Parker Pearson에 의해 발굴되기도 하였다. 최근 스톤헨지나 아일랜드 Meath county의 뉴그렌지(Newgrange, passage grave with corbelled vault of the chamber, 기원전 3200년) 집단묘(직경 80m)는 夏至(summer solstice)와 冬至(winter solstice), 그리고 태양과 달을 함께 숭배하던 종교적 聖所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의 브리타뉴 지방의 거석기념물은 기원전 4000년 이전에, 그리고 영국과 덴마크의 것은 기원전 3000년으로 이집트의 것보다 적어도 3-4백년 이상 앞서 유럽의 거석문화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무튼 이집트문명은 “이집트학”이 성립될 정도로 세계의 문명연구에 있어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와 누비아 지역의 18000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 나할 오렌(Nahal Oren)유적으로부터 채집한 곡물의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여 아부 후라야(Abbu Huraya)와 와디 쿠바니아(Wadi Kubania)유적 등에서 기원전 12500년경에 이미 야생곡물을 베어 갈아먹던 흔적이 발견되긴 하지만, 가축을 사육하고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전 5000년경이다. 이것이 기원전 4500년 전의 북쪽 하 이집트의 메립테 근처의 파옴문화로 대표된다. 기원전 3000년 초기부터 내려온 이집트 중부에 국한해 존재했던 바다리안 문화와, 기원전 3800년-기원전 3500년 엘 암라와 나과다 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존속했던 정착 주거 유적과 공동묘지로 대표되는 암라티안 문화, 그리고 상하 이집트 전역에 걸쳐 꽤 오래 동안 존속했던 게르지안의 세 문화가 순서를 이루어 이집트 왕조 형성 직전에 존재하였다. 기원전 3500년-기원전 3100년에 히에라코노폴리스와 멍피스를 중심으로 상이집트(남부 나일강 상류)와 하이집트(북부 나일강 하류)가 공존해 있었으나 기원전 3100년경 남쪽의 상 이집트의 파라오인 메네스에 의해 이들이 통일되어 이집트 역사상 첫 번째의 단일왕조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인들은 햄語族으로 수메르-이스라엘의 셈語族과 페르시아의 印歐語族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 1 왕조의 수도는

남부 상 이집트의 아비도스로, 제 2 왕조 때는 북부 하 이집트의 멤피스로 옮겨진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집트의 왕조가 시작된다. 이집트의 王朝史는 주로 기원전 3 세기 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그리스와 이집트인의 혼혈인 마네토(Manetho)라 불리 우는 사제에 의해 다시 작성된 왕들의 이름과 재위기간에 대한 기록과 아울러 이보다 1000 년 앞서 파피루스에 작성된 투린(토리노) 박물관에 소장된 투린 법전(Turin king list)과 Palermo stone에 주로 의존한다. 이 법전에는 기원전 1250년 19왕조에 관한 파피루스의 기록으로 이집트 통일 이전에서부터 신왕조에 이르는 파라오 전체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집트의 왕조사는 아래와 같다.

초기왕조	기원전 3100년-2686년	1-2 왕조
고왕조	2686년-2181년	3-6 왕조
제 1 중간기	2181년-2050년	7-11 왕조
중왕조	2050년-1786년	12-13 왕조
제 2 중간기	1786년-1567년	14-17 왕조
신왕조	1567년-1085년	18-20 왕조
말기왕조	1085년-332년	21-31 왕조
마케도니아제국시대	338년-146년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56년-기원전 323년 6월10일)의 다리우스 3세가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정벌과 수도인 파사르가데 Pasargadae를 포함하여 Susa, Persepolis와 Xerxes를 점령
프톨레마이오스왕조시대	304년-30년	기원전 31년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로마제국과 연합해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를 상대해 벌린 악티움해전에서 패함(로마는 王政-共和政-帝政의 순으로 발전하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되어 제정시대의 막을 열었다.)
로마통치시대	기원전 30년-서기 1453년	(서로마제국 기원전 30년-476년, 동로마제국 /Byzantine Empire, 서기 395/476년-1453년)
오스만 터키(Ottoman/Othman Empire, Osman Turk)	서기 1299년-1922년	

불란서·영국지배시대	1798년-1922년
이집트왕국	1922년-1952년
이집트공화국	1955년 이후

파라오는 왕과 신을 합한 전지전능한 고대 이집트의 지배자이다. 각각의 왕들은 전체 모두 31왕조를 형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힘이 세고 발전했던 시기는 고왕조(3-6 왕조), 중왕조(12-13 왕조), 신왕조(18-20 왕조) 때이다. 파라오는 앙크(생명의 상징)와 곡간(권위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갈고리와 채찍을 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머리에 쓰는 관도 남부 상 이집트의 린넨으로 만들어진 백관, 북부 하 이집트의 구리와 청동제의 홍관, 그리고 신왕조 때부터 나타난 전투용 헬멧인 청관의 셋이 나 된다.

파라오시대의 중요한 수도와 사원으로 유명한 곳으로는 누비아 아스완댐 근처에 있으며 람세스 2세(기원전 1250년경)에 의해 만들어진 아부 심벨, 제 1왕조의 수도이며 미라로 대표되는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를 모신 순례지인 아비도스, 기원전 1365년경 파라오 아키나텐(투탄카멘의 아버지이며 네페르티티의 남편인 아멘헤텟 4세임)에 의해 수도로 건설된 아마르나(아크타톤), 제 11왕조의 멘투호텟 1 세(기원전 2050년경)와 제 18왕조의 아멘호텟 2세의 왕비 핫셉수트의 묘가 있는 데르 엘 바리(Deir el-Bahri), 중왕조 시대에 건설된 핫토르 사원의 텐데라, 나포레옹의 원정시 두개의 사원이 보고 되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아스완댐 북쪽에 위치한 엘레판틴과, 멤피스시 북쪽 20 km 떨어져 태양의 신인 라의 숭배중심지이며 피라밋과 토트메스 3세의 오벨리스크(현재 런던에 있음)로 유명한 헬리오폴리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람세스(Ramses/Ramesses) 2세는 19왕조의 창시자인 람세스 1세와 아버지 셋티 1세의 평민과 군인이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전왕조의 파라오들과 같은 왕위계승의 정당성, 자신의 왕으로서 지나친 업적의 선전에 웅장한 건물과 사원을 많이 짓고 과시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업적이 보이는 곳들은 아비도스(Abydos), 람세스의 신전(Rameseum), 룩소르(Luxor, Karnak 신전에서 2km 떨어진 곳), 스팅크스와 아스완 채석장에서 만든 800 ton의 붉은 화강암의 오벨리스크를 세움의 카르낙(Karnak in Luxor, 게벨 실실라/Gulab 채석장에서 사암을 채석)과 왕가의 골짜기 KV5 및 KV7 무덤 등인데 특히 아스완의 아부 심벨(Abu Simbel) 신전의 안벽에는 자신을 살아 있는 신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스완 채석장의 람세스 2세의 높이 40m 무게 1300

톤이 나가는 오벨리스크가 미완성인 채로 채석장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것은 아마도 요르단 아만에 남아 있는 비잔틴시대 로마인들이 물레바퀴를 이용한 기계톱으로 절단한 석재의 존재로 보아 당시 오벨리스크나 대형 석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여러 신전의 벽과 작품에 미인으로 알려진 왕비들이 조각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그들은 18왕조 토트메스(Thothmes) 1세 딸로서 이복오빠인 토트메스 2세와 결혼한 후 병약하면서 戰死한 것으로 추정되는 2세 사후 양자로 들인 3세의 攝政기간 男裝으로 파라오에 즉위한 핫셉수트(Hatshepsut, 핫세푸스트, 18왕조, 기원전 1503년-기원전 1482년 통치), 아멘헤텡(또는 아키나텐/아크나톤) 4세의 부인인 네페르티티(18왕조, 기원전 1350년)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 로마의 카이사르(Julius Caesar, 기원전 100년-기원전 44년)와 안토니우스 장군의 정부였던 클레오파트라 7세(기원전 30년 자살: 표지 사진)이다. 핫셉수트의 미라는 하워드 카타(Howard Carter)가 1903년 왕들의 계곡 60(KV60)호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1920년 발견된 그녀 이름이 새겨진 肝과 齒牙가 담겨져 있는 상자(canopic box)에 남겨진 齒牙(upper/maxilla right 1st molar), 단층촬영(CT)과 DNA검사가 일치함으로서 2007년 6월 7일 이집트정부에 의해 핫셉수트의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핫셉수트 사후 양자인 토트메스 3가 파라오의 자리를 계승하였으며 그 후 아멘호텝(Amenhotep) 3세- 아멘호텝 4세(Akhenaten) - Tutankhamen으로 이어진다. 핫셉수트는 생전 유전적인 피부병, 관절염, 골다공증, 치조농루(periodontal disease, periodontitis, 치근막염으로 추정) 등으로 고생했는데 死因은 치조농양(alveolar abscess)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원전 1274년 히타이트의 무와타리왕과 현 시리아의 오론텐스강 옆 가데슈에서 전쟁을 벌이고 강화조약을 맺은 19왕조의 람세스 2세(부인중의 한명은 네페르타리임)도 아부 심멜 신전 등에 조각되어있다. 이집트 3대 미녀 중 잘 알려져 있는 크레오파트라는 파라오가 이끄는 전통적인 이집트왕조의 후예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기원전 323년 6월 10일 바빌론에서 헬레보레 중독으로 인해 병사할 때 그의 부하장군중의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분할통치가 이루어져 기원전 304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성립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기원전 304년-기원전 30년)말의 마지막 여왕이다.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왕의 누이로 동생과의 권력투쟁에서 처음에는 로마공화정의 카이사르(Julius Caesar 기원전 100년-기원전 44년)의 情婦가 되었다가(둘 사이의 아들은 카이사

리온임) 후일 카이사르의 암살 후 카이사르의 조카 겸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기원전 27년 로마의 초대 황제 Gaius Octavianus가 됨. 기원전 64년-서기 14년),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체제를 이루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정부 노릇도 하였다가 기원전 31년 일어났던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인 악티움 해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자살로 마감을 하였다.

하늘과 신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염원을 담은 피라밋은 파라오의 시신(미라 또는 머미)을 안치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5면 체의 기념물적인 무덤이다. 인류는 전 세계에서 하중을 지탱하고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물리적 법칙인 피라밋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 기원은 선왕조 때 수메르지역의 사원 건축물인 지구라트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만들어진 마스타바에 있다. 이것이 고왕조에 들어가서 석제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또 규모도 커졌다.

최근 펜실바니아 대학의 Matt Adams 교수팀에 의한 아비도스의 제1왕조 아하(Aha) 왕의 마스타바(mastaba)발굴에서 송진과 뼈 조각이 묻어있는 천 조각이 나와 1 왕조 때부터 미라를 만들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사카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 3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조서(Zoser/Djoser, 기원전 2687년-기원전 2667년 재위, 기원전 2687/2686년-기원전 2613년: 이것은 그의 재무각료이며 건축가인 임호텝에 의해 만들어진)의 계단식 피라밋(한 변이 약 62 m임), 4왕조 1대 스네프르의 메이둠 계단식 피라밋(step pyramid)과 다슈르의 벤트 피라밋(bent pyramid), 스네프르가 세 번째 세운 레드 피라밋(red pyramid)을 거쳐 오늘날의 전형적인 쿠푸(치옴), 체프렌, 미케리누스의 피라밋으로 발전한다. 완성된 피라밋은 기지에서 보이는데 그것들은 쿠푸왕의 Hetepheres 왕비, 스네프르의 부인, 누이동생과 어머니의 소규모의 피라밋들을 포함하여 제 4왕조의 파라오인 쿠푸(Khufu, 또는 치옴 Cheop), 체프렌(Chefren/Khafre, 여기에는 Sphinx가 있음)과 미케리누스의 피라밋에 속한다. 3왕조에서 6왕조(기원전 2613년-기원전 2498년)에 이르는 고왕조 파라오(왕)의 순서는 Khasekhemuy(Zoser의 父, 2왕조의 마지막 왕 - 3왕조 첫 번째 파라오 Sanakht(Zoser의 형) - Zoser(Djoser 기원전 2687년-기원전 2667년 재위, 기원전 2687/2686년-기원전 2613년) - 4왕조 첫 번째 파라오 Snefru(기원전 2613년-기원전 2589년/기원전 2575년-기원전 2551년) - 쿠푸(Khufu, 또는 치옴 Cheop, 기원전 2589년-기원전 2566년) - Chepren/Chefren(또는 Khafra, 기원전 2558년-기원전

2532년, Turin 법전에 기원전 2566과 기원전 2558년 사이에 8년의 공백이 있음) - Mycerinus(4왕조 마지막 파라오, Menkaure, 기원전 2532년-기원전 2503년).....Pepi II세(6왕조, 기원전 2278년-기원전 2184년)가 된다. 가장 큰 규모의 “대피라밋”은 제 4왕조의 파라오인 쿠프(Cheop, 기원전 2560/2551년)의 것으로 Chepren/ Chefren(Khafra) 왕비 Meresank II세의 사촌인 당시의 건축가인 Hemiunu에 의해 축조되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755 피이트(약 230 m)이고 높이는 481 피이트(약 147 m)나 된다. 놀라운 것은 한 변의 오차가 겨우 8인치(약 2.1m 미만) 이내이며 동서남북의 정방향에 맞춘 모서리의 오차가 1/10도 정도의 정교한 건축술에 있다. 이러한 피라밋은 후일 암굴을 파고 들어가 축조한 석실묘(암굴묘)로 발전하는데, 테베의 왕묘의 골짜기에 있는 18왕조의 파라오 투탄카멘(기원전 1358년-기원전 1349년)과 19왕조의 파라오 셋티 1세(기원전 1290년-기원전 1279년/기원전 1291년-기원전 1270년)의 무덤이 가장 유명하다. 다시 말하여 이집트의 묘제는 초기의 낮은 계단상의 마스타바(mastaba)에서 계단식의 피라밋(step pyramid), 경사진 벤투 피라밋(bent pyramid), 제 4왕조 1대 파라오인 스네프루(Snefru, Snofru, Sneferu, Snefrue, 기원전 2613년-기원전 2589년) 때 만들어진, 화강암 표면이 벗겨져 연분홍 색깔을 띠는, 그리고 드물게 흰색의 Tura의 석회암을 사용하기도 한 붉은 피라밋(red pyramid)을 거쳐 그 다음의 완성된 이집트의 전형적인 피라밋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岩窟墓로 변천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피라밋의 제작도 종래 생각해오던 전쟁포로나 노예들이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Kurt Mendelssohn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도시에 살고 있던 일반 평민들이 나일강의 홍수로 인한 7·8·9월의 농한기에 국가의 조직적 차원에 실시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였으며, 출퇴근과 조퇴도 까다롭지 않고 매우 자유스러웠던 점이 최근의 상형문자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밝혀지고 있다. 쿠프왕의 대피라밋 옆에서 발굴된 길이 60m, 651개의 나무 조각으로 짜 맞춘 목조 배는 왕의 내세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오벨리스크 같은 대형화물의 운송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콥트 신전 벽의 상형문자나 뉴욕현대미술관의 에드윈 스미스(Edwin Smith) 파피루스문서의 해독에 따라 이집트의 의학이 외과 수술을 할 정도 발전해 있었으며 실제 두개골의 開孔術(trepanation)을 보여주는 증거도 발견되기도 한다.

피라밋 다음 잘 알려진 이집트문명 특성 중의 하나는 4왕조 Chefren/Khafre 파라오의 무덤 앞에 세워진 스�핑크스(sphinx)이다. 이는 인간 혹은 드물긴 하지만 숫양의 머

리를 가진 사자상을 의미한다. 본래 이것은 이집트인들에 의해 해지는 서쪽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여겨져 왔으나 무덤이나 사원의 입구에 세워져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구실을 담당하게 되었다. 숫양은 태양의 신인 라(Ra)를, 인간은 태양에 동화된 죽은 파라오를 의미한다. 가장 크고 유명한 �핑크스는 기자에 있는데, 이는 “대피라미트”의 건립에 필요한 석재를 채석한 후 남겨진 돌산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기원전 약 26세기경에 죽은 제 4왕조의 파라오인 체프렌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며, 그 길이는 240 피이트(약 73 m), 높이 66 피이트(약 20 m)이다. 인간의 머리를 가진 보통 암사자의 조각은 후일 히타이트나 그리스인에 의해서도 다시 만들어졌다.

그 다음 잘 알려진 것은 미라(mira, 木乃伊)이다. 미라는 포튜갈어로 약품을 넣어 썩지 않도록 한 시체나 묘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 본 모양 그대로 남아 있는 송장을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미라 대신 머미(mummy)란 말을 쓴다. 강력한 종교적 내세관에 의해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집트인이 처음이다. 이집트인들은 인간 뿐 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미라로 처리해 보존하였다. 이집트인은 사자는 비록 무덤 안에 있지만 멀리 떨어진 내세에서 여러 신들(冥府의 오시리스, 死者와 玉座의 수호신이며 오시리스의 부인인 이시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들인 王權의 수호신인 호루스신, 사랑의 여신 하토르와 태양신 라 등)과 교류하며 산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후 자신의 시신이 땅위에서 썩 무덤 같은 휴식처가 필요했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시신을 썩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들은 미라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다. 처음에는 모래 속에 시신을 매장했다가 나중에는 가죽이나 수의에 싸서 보존했다. 그러다가 방부제를 넣어 보존하게 되었다.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과정은 뇌나 내장과 같은 썩기 쉬운 부분을 금속탐침이나 갈고리로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뇌는 버리고 폐, 위와 창자는 별도의 케노피(canopic jar)란 용기에 담아 시신 앞에 보관한다. 그리고 심장만은 몸에 그대로 남겨둔다. 몸 자체는 말린 생선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처음 천연탄산 소다나 아마포 뭉치로 몸을 감싸 수분을 제거한다. 그리고 몸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굴곡이 심한 부분에 아마포 뭉치로 메워 넣는다. 그런 다음 붕대나 수의로 몸을 스무 겹 정도 감싼다. 팔, 다리, 손가락과 발가락은 따로 따로 싰는다. 한 겹 한 겹 수의를 감쌀 때마다 수지를 발라 접착이 용이하게 하고 그 속에 명부의 신인 오시리스 신

에게 바칠 뇌물 겸, 장례용 보석(聖甲虫scarab, 안전과 영속의 상징인 djed柱, 胸飾 pectoral with scarab design 등 포함)이나 死者의 書와 같은 파피루스 부적을 넣기도 한다. 여기에는 “언어를 통해 축복받는 사후세계인 영생”을 보장받는 “死者의 書”(Book of the Dead)도 포함된다. 사자의 서 중 가장 완벽하고 유명한 것은 19왕조 기원전 1250년경에 제작된 23m의 두루마리(scroll) “아니의 파피루스(Ani's papyrus)”이다. 이는 1887년인 대영제국 박물관 이집트 관련 학예사인 어니스트 알프레드 왈리스 버지(Earnest Alfred Wallis Budge)가 룩소르(옛 테베)의 케르나(Kerna)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라는 관속에 넣어져 피라밋 속에 안치된다. 그 후 사자는 지하세계의 대표신인 오시리스에게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서 통과하면(天秤, 또는 천평칭의 기울어짐으로 평가) 내세로 그렇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사자, 악어와 하마의 모습을 합한 고블리(또는 아미트)란 동물에 잡혀 먹힌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적이 관속에 넣어 지거나 벽에 그려지기도 한다.

고양이와 개의 미라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세공한 각종 장신구를 비롯해 분말석영, 소다(유리질인 SiO<sub>2</sub>가 용융되는 썩씨 1712도를 1000도 이하로 내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와 구리를 섞어 만든 당시의 고가품인 파양스(faience) 인물상이나 알라바스터(설화석고: alabaster)로 만든 화장접시가 부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20왕조 Ramesses(Ramses) IX세(기원전 1129년-기원전 1111년)의 재위 16년(기원전 1114년) Amun Re 사원 석공의 아들인 Amen Phufer가 동료 6명과 함께 서쪽 테베 왕묘의 골짜기에서 17왕조 Sekhmre Shedtawy Sobekemsaf I세(기원전 1580년-기원전 1550년)의 무덤을 도굴하여 재판을 받는 기록이 Abbott & Leopold -Amhest 파피루스와 테베 또는 카르낙의 시장인 Paser의 파피루스 기록에 나타난다. 그 사건은 왕릉 보호책임자인 Paweraa와 시장 Paser와의 정치적 암투, 도굴에 연루된 석공, 상인, 직조공, 관리, 신전 경비원과 카르낙의 성직자 등에 관한 당시 사회의 총체적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미라가 가장 잘 남아있는 왕은 신왕조 19왕조의 람세스 II세의 것으로, 그는 람세스 I세[Ramesses/Ramses, 19왕조의 창시자로 18왕조 말 마지막 파라오 Horemheb(기원전 1321년-기원전 1292년)때 총리대신을 지낸 아이로로 기원전 1295년-기원전 1294년 재위/기원전 1292년-기원전 1290년 재위, 그의 미라는 1859년 쿠르나 왕묘의 골짜기에서 도굴되어 그 이듬해 캐나다의 Niagara Fall Museum에 있다가

그의 신원이 확인된 후 미국의 Georgia주 Atlanta시 Emory University의 Michael C. Carlos Museum으로 옮기고 현재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으로 돌아가 전시됨]와 셋티 I 세(Seti/Sethos, 기원전 1294년-기원전 1279년)를 이어 25세에 왕이 되어 67년 통치를 하고 92세에 생을 마감하였다(기원전 1279년-기원전 1212년). 그의 여러 부인중의 한명은 잘 알려진 네페르타리이며 그가 죽을 때 13번째의 자식인 메렌타프(Merentaph 어머니는 Isetnofret임)가 60세의 나이로 왕위를 이을 정도로 자식이 20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람세스 II는 Ptah, P're, Amun, Ne'arin의 4개 군단 약 18000명을 거느리고 기원전 1274년 히타이트의 무와타리(Muwatalli)왕과 현재 시리아 오론텐스강(Orontes river) 옆의 카데슈(Kadesh/Qadesh, 당시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Mittani 왕국에 속한 무역중심지인 Quadesh임)에서 만나 一戰을 겨루었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후일 히타이트 제국과 婚姻同盟講和條約을 맺어 그로부터 80년 정도 평화를 유지하였다. 평화조약에 의해 히타이트는 카데슈를 이집트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군사적인 해결보다 외교적인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협상문서는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과 UN에 보관되어 있다. 이는 양측이 고안한 최첨단의 무기 덕분이었다. 이때 이집트에서는 물소뿔, 가죽과 동물의 힘줄을 생선에서 추출한 아교로 붙인 최첨단무기인 복합궁(composite bow, 곡궁·각궁, 하나의 완성에 18개월 정도 소요됨), 철퇴를 대신한 진보된 야금술을 보여주는 구리에 주석 10% 이상 가미한 청동제의 도끼, 나무틀에 가죽을 입힌 방패, 궁수가 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인용 輕戰車(바퀴살이 넷)가, 히타이트에서는 彎曲刀인 코패쉬, 찰갑형태의 갑옷과 3인용 重戰車가 선보였다. 그리고 그는 아부 심벨, 라메세움(Rameseum), 카르나크와 테베(룩소르) 등 많은 신전에 실제보다 과장된 터무니없는 그의 전승업적을 새겨 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1세 즉 그의 統治 後 16년 해인 기원전 1263년경 모세의 출애굽기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그의 미라는 테베 왕가의 골짜기 KV7 무덤에 묻혔으나 후일 Deir el-Bahri의 미라 은닉소(mummy cache)로 옮겨져 1881년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이집트와 지중해상의 미노아 문명(Minoan: Arthur Evans가 선 문자 A를 확인하는 과정에 1899년 크노소스궁을 발굴하기 시작부터 알려짐: 기원전 2200년-기원전 1450년 존속)과 미케네 문명(Mycenae: Heinrich Schliemann에 의 밝혀진 그리스의 청동기문화)교역이 알려지게 되었다. 로데스에서 1866년 미케네의 토기와 함께 아멘헤텟 3세의 聖甲虫 胸飾(pectoral with scarab design)이, 그리고 같은 해 하인리

히 슈리만에 의해 오르코메네스의 민야스에서 아멘호텝 3세의 무덤천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연화문이 조각된 무덤의 뚜껑이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린더스 페트리(Flinders Petrie)에 의하면 이집트의 중왕국(기원전 2051년-기원전 1786년) 12 왕조의 유물이 미노아 문명의 것과, 미노아 문명을 이은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Mycenae 기원전 1600년-기원전 1200년 또는 기원전 1550년-기원전 1000년)문명의 토기와 이집트의 신왕조(기원전 1567년-기원전 1085년) 18 왕조 말의 유물이 교역에 의해 서로 공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이집트의 아키나텐 또는 아멘헷 탭 4세 왕(기원전 1380년-기원전 1360년)의 텔 엘 아마르나 유적에서 미케네 문명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미노아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으로의 이전은 기원전 1628년(또는 기원전 1644년)에 일어났던 테라(산토리니)섬의 화산폭발이 결정적이었으며, 그 후 미케네 문명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의해 미노아 문명이 다스려지다가 서서히 미케네 문명에 통합·흡수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아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크노소스궁의 미궁(labyrinth)에 들어가 미케네에서 매년 7남7女の 공물을 받아오던 미노타우루스라는 半人半牛의 怪獸를 죽임으로서 미노아 문명의 미케네 문명으로의 통합을 보여주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집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1799년에 대영제국 박물관으로 이전된 유명한 로젯타 비석으로 나포레옹의 이집트 원정군대가 나일강 서쪽 하구의 로젯타에서 발견한 현무암제 석판이다. 이것은 이집트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1798년 8월 1일 일어난 알렉산드리아 아보우키르 만(Abourkir bay) 海戰(일명 나일강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의 기함인 120문의 포를 장착한 로리앙(L'orient) 호를 포함한 13척이 Horatio Nelson 제독이 이끈 영국함대의 집중포격을 받아 침몰해 일찌감치 영국군의 승리로 끝나, 영국의 전리품이 되어 지금은 대영제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비는 기원전 196년에 만들어진 프톨레미왕조(알렉산더대왕 사후에 부하장군들인 셀레우코스 니카도, 안티고이드와 프톨레미가 각각 영토를 분할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임: 기원전 304년-기원전 30년)의 프톨레미 5세의 칙어를 새긴 것으로 그리스어, 이집트의 민중용 문자와 상형문자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자들은 불란서의 샴포리옹(Jean François Champollion, 1790년-1832년)이란 학자로 하여금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결과로 근대 이집트학문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22년 영국의 하워드 카터와 카나본경이 발굴한 투탄카멘(Tutankhamun/ Tut-ank-Amen) 왕릉의 발굴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테베의 왕묘의 골짜기에서 발굴된 암굴묘로, 주인공인 투탄카멘 왕은 신왕조 제 18왕조[순서는 Thotmes I세 - Thotmes II세(부인 Hatshepsut, 기원전 1503년-기원전 1482년) - 양자 Thotmes III(기원전 1504년-기원전 1450년) - Amenhotep IV세 - Tut-ank-Amen(기원전 1358년-기원전 1349년)으로 이어짐]때 아멘헤텡(Amenhetep) 4세(또는 태양신 Aton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던 Akhenaten 왕임: 기원전 1353년-기원전 1336년 재위, 테베에서 아마르나/아크타톤으로 移都)와 이집트 3대 미너중의 하나인 부인 네페르티티(Nefertiti: 기원전 1352년-기원전 1340년?) 왕비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여 9년간의 재위(기원전 1358년-1349년/기원전 1332년-기원전 1322년) 중 이집트 테베의 신인 아멘신의 복원을 시작해 자신의 이름도 이에 따랐다. 그런데 네페르티티 왕비는 6명의 딸을 두고 아들이 없었다고 하며, 아키나텐의 둘째 부인 Kiya(기원전 1350년경)를 투탄카멘 왕의 생모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아키나텐의 아버지인 Amenhotep III세(기원전 1390년-기원전 1353년 재위, 그의 부인은 Tiye임: 기원전 1390년-기원전 1340년)가 투탄카멘 왕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투탄카멘 왕은 18세에 요절했는데, 그의 시신은 세 겹의 관과 1 톤이나 되는 순금의 마지막 내관에 안치되어 있었다. 발굴 중 무덤 내부에 파라오가 생전에 쓰던 물건으로 가득 차있어 그것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다. 또 투탄카멘 왕의 死因은 종래의 생각대로 정적에 의해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히타이트와의 전쟁 또는 사냥時 落馬하여 입은 왼쪽 대퇴골의 내측과(left medial and lateral epicondyle)의 골절상의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나 파상풍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탄카멘 왕의 발굴은 이집트 발굴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고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이 발굴은 발굴을 지휘했던 이집트인 인부책임자를 제외한 카나본경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명횡사를 해 파라오의 저주로도 잘 알려져 있으나 이의 원인은 무덤 속에 남아있던 풍토병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왕조 중 Thotmes III세(Thutmos)는 Thotmes II세와 핫셉수트(Hatshepsut, 핫세푸스트, 18왕조, 기원전 1503년-기원전 1482년 통치)의 양자로서 Thotmes I세와 노예 Isis사이에서 태어났다. 왕위를 계승한 후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에 버금 갈 정도로 이집트의 파라오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졌으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비시니아(이티오피아)와 누비아 지역에

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 중 기원전 1458년 12월 시리아의 카데슈왕의 반란을 진압한 메기도 전쟁은 유명하다. 또 카르나크의 조상신전(Hall of Ancestors)을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그의 업적을 새긴 오벨리스크는 뉴욕의 Central Park와 런던 시내에 이전·전시되고 있다.

나일강 상류지역인 수단의 이집트왕조와 첫 번째 관계는 기원전 2300년경 고왕조 때로 누비아지역이 무역으로 언급되기 시작함으로 부터이다. 이집트인들은 남쪽 제 1 폭포가 있는 아스완지역에서 金, 香, 黑檀, 象牙와 열대 아프리카지역의 귀한 동물 등을 누비아지역을 통해 수입하였다. 6왕조 때 누비아 지역은 여러 작은 왕국들로 분열되었다. 기원전 2240년-기원전 2150년 이 지역에서 번영을 누리던 사람들은 누비아 무역의 고고학 상 group-C로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외부로부터 침입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출신 인지는 아직 異見이 있다. 두 번째는 이집트 중왕조(기원전 2050년-기원전 1786년/기원전 2040년-기원전 1640년) 때로 이집트가 貿易路를 통제하기 위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제 2 폭포에까지 이르며 가는 곳곳에 요새를 세운다. 세소스트리스 3세(기원전 1878년-기원전 1803년)때인 기원전 1864년 누비아의 금광을 완전히 장악했다. 세 번째로 케르마(Kerma)왕국이다. 행정중심지는 제벨 바르칼(Jebel Barkal)강 남쪽 케르마였다. 기원전 1750년경 케르마왕국은 강해져 기념물과 같은 성벽과 흙벽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死者의 來世를 위해 부장품을 많이 넣은 거대한 무덤을 세우거나 많은 人身犧牲을 일삼았다.

이 왕국을 다스리던 8명의 통치자의 것들로 생각되는 직경 약 90m의 거대한 무덤들이 아직도 존재해 있다. 야금술이 뛰어난 전문장인이 많았으며 토기의 제작수준도 이집트를 능가할 정도였다. 신왕조(기원전 1567년-기원전 1085년/기원전 1532년-기원전 1070년)때 이집트는 다시 힘을 얻어 케르마왕국과 그 수도를 파괴하고 남쪽으로 제4 폭포에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기원전 1520년 투트모세(Thutmose) I 세 통치기간에 모든 북쪽의 누비아 지역을 이집트에 합병하고 나파타(Napata)에 행정수도를 두어 모든 금의 생산을 독점하였다. 네 번째는 이집트가 몰려났을 때 독립적인 쿠쉬(Kush)왕조가 들어서 이집트인의 종교를 그대로 따르고 피라밋까지 모방해 축조하였다. 신왕조가 무너지는 기원전 900년-기원전 750년경(이집트 25왕조)에는 이집트로 침입해 들어가 그 곳을 통제할 정도로 강해지는 역현상까지 벌어졌다. 이 왕국은 기원전 663년 앗시리아

(Assyria)의 침공으로 몰락하고 수도를 나파타에서 남쪽 Meroe로 옮겨 왕조를 이어나갔다. 이 쿠쉬 왕국은 누비아지역의 금광개발과 홍해(Red Sea)를 중심으로 수단, 이티오피아, 이집트간의 중개무역 등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이들 정치적 실세들은 모두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고·중·신왕조에서 파견된 관리, 귀족 또는 파라오의 왕족들의 後裔들로, 이집트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누비아나 쿠쉬와 같은 독립된 왕국을 세운 것이긴 하나 이집트의 문명의 충실한 傳承者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 왕국은 앞으로 사하라사막 남쪽에 만들어지게 될 국가들의 範本이 되었다. 그리고 쿠시왕국은 서기 350년경 이티오피아의 악숨(Axum/Aksum)왕국에 흡수당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집트문명의 특성중의 하나는 건축물이나 예술양식 등에서 보이는 획일성(canon)이다. 이는 피라미트의 기하학적 구조, 벽화나 조각의 동일한 양식과 일정한 신체의 비율을 잘 알고, 측면상의 인물상의 제작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영생불멸과, 고립되고 보수적인 파라오의 전제왕권 또는 중앙 집권(centralized state)이 전통과 관례에 따라 통치했던 제사장이나 세습관료들의 능률적인 도움으로 세계에서 유래 없는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왕족들 사이에서 近親相姦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재산의 상속이 모계(matrilineal inheritance)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립(isolation), 오랜 전통의 지속(continuity)과 보존(conservation)이 이집트왕조를 대표하는 단어들이었다.

## 출전

최몽룡 2007 인류문명 발달사, 주류성, 19-50쪽

# 인간과 문화

김 광 역 (서울대학교 교수)

## 1. 문화를 보는 눈과 방법

### 1-1. 여행(타자와의 만남) 속으로

타자의 발견과 대안적 세계의 탐구  
티벳여행과 장례(天葬) 참관

### 1-2. 문화론: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규정짓기

현실: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눈을 통하여 머리에 인식되어지는 그림  
세상을 보는 눈(틀, 창문, 렌즈)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데올로기/ 국가의 이념적 지향/ 상상을 지배하는 힘

### 1-3. 인류학자의 문화읽기

사람을 통하여/ 일상세계를 통하여/ 함께 체험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이 되기  
통합적 체계 (총체) 속에서 이해/ 민족지적 재현

## 2. 나와 남 그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이해

### 2-1. 생산수단으로서의 문화

뭉치면 죽고 헤치면 산다

### 2-2. 상징체계로서의 문화

색깔의 상징분류체계

### 2-3. 제도로서의 문화

한·중·일 사회의 가족제도 분석

## 3. 말하는 물건 (사물에 대한 문화인류학)

### 3-1. 물건

인격, 권력, 역사, 주술, 상징.

### 3-2. 자연과 인간

식물/ 동물/ 돌/ 물/ 산

성스러운 장소/ 장소의 상징분류

歲寒圖/ 퇴계와 매화 그리고 秋月寒水亭

半畝方塘 蓮 (주돈이)

### 3-3. 의식주의 문화인류학

복장(패션)의 정치

음식인류학 (과학/ 상상의 과학/ 예술/ 권력/ 성과 계급)

함께 먹기(잔치)/ 식당의 메타퍼/ 요리등급/ 좌석배치/ 식탁매너의 정치학

임금님의 집/ 관료의 집/ 서민의 집

## 4. 믿음과 상상의 힘

### 4-1. 자연에 대한 생각

자연과 초자연: 자연의 분류

자연과 문명(文化된 自然)

우주관: 신과 인간은 공간을 공유하는가?

### 4-2. 신에 대한 생각

초월자에 대한 믿음과 재생(부활)의 염원

의례: 해방과 부활과 정화의 상징적 체험의 조직

초인간적인 것에 대한 신앙

초인간적인 존재의 발명

### 4-3. 인간에 대한 생각

성리학/ 도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서 하는가?

샤머니즘과 유교의 고찰

#### 4-4.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쟁

人物性同論 시비(노론의 湖洛논쟁과 실학의 내용)

이기논쟁(퇴계와 이이 서화담 등 성리학)

풍수론과 도가

조선조 성리학 이념의 실천을 둘러싼 정치: 미완의 정치

### 5. 민족과 지구촌

5-1. 핏줄에 대한 상상력: 영원한 제국: 민족주의

5-2. 문화와 인종의 비빔밥: 용광로 이론의 허와 실

5-3. 다름에 대한 관용 능력

# 문화론 철학

전 경 수 (서울대학교 교수)

## 1. 뽀뽀지의 一場春夢: 서론

인류라는 종이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밟아오는 역정 속에서 가장 독특한 작업을 한 것이 있다면 概念의 발견이나 발명이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적인 구조가 보여주는 유전 인자의 역동성에 버금가는 인간의 활동이 개념의 창출일 것이다. 유전자는 위로부터 생물학적으로 받아내려온 것이지만, 개념은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버려온 축적적이고 생산적이고 상징적이고 창조적인 인류과정의 최대산물이다. 인류와 다른 생물종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가장 흔히 대두되는 장르가 뽀뽀지와 인류 사이의 차이점과 동일상에 대한 논의다. 그중에서도 道具의 사용과 제작이라는 점을 두고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왔다. 猿類學(primatology)에서도 그랬고, 人類學(anthropology)에서도 그랬다.

도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능력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지적수준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인원들의 간극이 얼마나 좁은 것인가 하는 점을 더욱더 좁혀서 논의할 수 있는 노력들이 유인원들의 도구 사용과 제작에 관한 이해 노력이다. 나는 그러한 차원에서 뽀뽀지(humpanzee)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작하였다. 휴먼과 뽀뽀지의 두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생화학적인 차이를 증명함에 있어서, 뽀뽀지와 인간 사이는 1.5%, 인간과 고릴라 사이는 2.1%라는 연구결과와 중간교배의 가능성을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용어다. 나귀라는 종과 말이라는 종 사이의 생화학적 차이는 3% 정도, 호랑이라는 종과 사자라는 종 사이의 생화학적 차이도 3%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고 노새와 버새가 생산되고 라이거가 탄생된 사실을 직시한다면, 1.5% 내지 2.1%의 DNA상 차이를 보이는 “人”종과 “猿”종 사이의 중간교배 산물을 추론해낼 수 있다. 그러나 뽀뽀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동원된 사실들과 추론력을 한 번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人-猿 相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생물학적 사실을 침소봉대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개념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철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 人-猿 相異의 현상에 대해서 간과해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내지 2%라는 숫자는 나머지의 98% 내지 99%라는 숫자와 대비될 수 없는 차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생물학적 진화과정의 임계치가 적용된 포인트라고나 할까. 일찍부터 그 임계치를 간파했던 사람들은 쓸데없이 만물영장설을 주장하였다. 1% 내지 2%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의 성립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논리비약일 뿐이다. 닭이 그 설을 듣고 흥분할 리도 없고, 미꾸라지가 그 주장을 듣고 반론을 펼 까닭도 없다. 미풍에 흔들리는 길가의 질경이가 그 얘기에 놀라서 흔들릴 리도 없다. 그러한 주장에 호도 당하는 것은 인간일 뿐이고, 사실을 호도 당한 사람들은 엉뚱한 일들을 저지른다. 문화에 관한 논의도 사실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기가 되어서 부머랭 효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 2. 인류학의 주제: 문화

문화인류학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인류학이란 학문의 근본적 주제는 문화라고 얘기된다. 생물학적 인류학의 측면에 서서 인간을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뼈와, 체질적 특징의 연구가 목적이 된다면 해부학, 골격학 또는 생리학 등과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화석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는 고인류학자(paleoanthropologist)나 체질인류학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차원에 살았던 사람들의 도구(문화의 한 표현으로서)와 관련지어서 인간의 행동과 관념 그리고 문화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게 된다. 즉 인간의 두개골에 관한 연구를 하는 두개골 학자의 업적으로부터 얻은 두개골 용량의 크기 변화에 관한 자료는 인간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고, 또한 도구의 사용이 인간의 두개골 용적 변화와 손이나 치아 그리고 하악골의 형태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치아와 구강구조에 주로 관심이 있는 구강인류학자는 언어현상의 발생과 변천에 대한 구체적인 신체적 특질을 제공함으로써 언어인류학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

게 되는데, 이 언어 현상이 점유하고 있는 문화에서의 위치는 설명을 요할 여지도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인류학사상 또는 사회과학사상에서 전개된 문화의 개념들을 요약해 보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문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이며, 오히려 그 개념의 광범위성 자체가 인류학이란 학문의 근본적 주제 자체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조차 내포하고 있다는 학문 자체의 존부 양면성까지도 논의케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은 우리들에게 인류학이란 학문내에서의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넘어선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빙산의 일각밖에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한 화이트(White), 타일러 (Tylor), 소로킨 (Sorokin), 비어스테트(Bierstedt)의 진술들은 일종의 동어반복적 설명을 통하여 문화라는 것의 범위 또는 개략적 이미지를 그려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나는 문화에 대한 동어반복적 설명 이전에 전개되어야 할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설명의 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은 “상징행위”(White 1979), “전인류의 기억”(Bierstedt 1963), “사회의 성원으로서 획득한 지식·신앙·예술 도덕·법률·풍습 및 기타의 기능,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Tylor 1871),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의미·가치·규범의 전부와 이러한 의미들을 객관화하고 사회화하고 전 달하는 매체의 전부”(Sorokin 1947)라고 정의된 바대로, 개념정의 자체가 문화라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한 매듭으로 수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저히 풀어내기 어렵게 형클어진 실꾸리미와 같은 것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긍정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확산으로 귀착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문화개념의 정의에는 관심없는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인류학이란 하나의 분명한 연구주체의 존재에서 출발한다기보다 인문학들의 총체에다가 보편적인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요식화시키는 방법에서 출발한다”(Lévi-Strauss 1976)고 주장하게 되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결합된 존재다. 문화인류학은 마음을 대상으로, 체질인류학은 몸을 대상으로 인간이란 존재를 탐구한다. 체질인류학이 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마음과 결합된 몸을 연구하기 때문에 체질인류학의 연구도 궁극적으로 마음을 지향하는 연구를 한다.

과학적 질문의 요체는 “왜 ?”와 “어떻게 ?”의 반복적 추구라고 생각한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는

문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우회하였다. 우회의 과정이 본고의 본론에 해당된다.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문화를 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러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라는 말의 핵심적 의미는 마음의 표현이다. ‘문화’라는 말이 각별히 문학이나 예술 작품 및 종교적 활동이나 철학적 주장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그럴 때 ‘문화’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읽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품, 활동 그리고 주장의 본연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음식·화장·결혼 그리고 인간이 하는 그 밖의 의도적인 모든 것에 ‘문화’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 속에서 표현된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집단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며,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꾸미고 사용하며, 어떤 식으로 짝을 짓는가에서 그 인간, 그 집단의 마음씨 즉 인간의 고유한 얼굴을 비쳐볼 수 있다는 것이다.”(朴異汶 1995)

문화란 개인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가? 흔히 혼용되고 있는 문화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이며, 양자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무수한 학자들이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서, 삼자 즉 문화·개인·사회의 각각의 개념과 관계들에 관한 논의는 인류학 입문을 논하는데 필요하고도 지극히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논의 전개에 편의를 위하여 필자는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한다. 야구라는 운동을 예로 들어서 개인·사회·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정의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야구라는 운동은 야구선수를 필요로 하고, 선수로 구성된 팀이 있게 되며,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다. 개인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야구선수에 해당되며, 사회라는 것은 개개인의 야구 선수들이 모인 팀 즉 개인의 집단으로 파악될 수 있고, 문화는 개인적인 야구선수들과 그 야구선수들이 모인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야구라는 특정한 운동경기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규칙들의 총합체에 해당된다.

어느 고등학교의 야구부를 거쳐간 야구선수(개인)는 수없이 많다. 홍길동이라는 야구선수가 졸업을 하고 난 뒤라도 보충된 다른 선수에 의하여 야구부팀(사회)은 시간선상에서 유지된다. 그 야구부는 야구선수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그 팀을 지원하는 동창회의 경제적 후원,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성원 등등 각기 다른 수

준의 사회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다. 어떤 때는 동창회와 학교의 재정난으로 야구부가 해체되기도 한다. 그 야구부가 해체되었다고 해서 야구라는 운동 자체의 규칙들이(문화특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야구라는 경기의 규칙에 따라 야구부가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해서 야구경기는 지속된다. 또한 야구라는 것은 그 경기를 해내는 선수(특정 개인이 아닌)라는 것이 없으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과 문화의 관계는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야구경기의 규칙들은 그 운동이 생겨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조금씩 또는 어떤 경우에는 커다랗게 변화되어 현재에 이른다. 어떤 때에는 선수의 숫자도 변화했고, 경기 횟수도 변화되었으며, 악천후에서의 경기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변해 왔다. 따라서 이 규칙(문화특질)과 규칙들의 통합체(문화)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문화의 변동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와 개인의 관계에 관해서 비유한 기어츠의 거미와 거미집의 설명은(Geertz 1973) 이러한 논의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거미는 개인에 해당되고 거미집은 문화에 해당된다. 그 거미집을 기반을 먹어도 포획하고, 자손도 퍼뜨린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어 거미집을 만들듯이 개인은 문화의 창조자인 동시에 “문화의 소재지”(locus of culture)가 된다(Hsu 1972 : 2). 그 개인은 그 자신이 자아낸 거미집인 문화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문화의 수인(囚人)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선학들의 동어반복적 설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분석적, 해석적 설명을 시도하기 위한 필자의 노력이 목적달성이란 측면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를 보는(또는 연구하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합-문화개념의 정의로서는 극치의 동어반복-으로 표현되는 문화를 보는 입장들은 어떠한가! 야구경기에 관련되는 제반 규칙들의 총합체를 문화라고 비유하여 규정한다면, 그 규칙이라는 것 속에는 수많은 변인들이 내재할 수 있다. 그 수많은 변인들의 조합이 생성시키는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문화라고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반 규칙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얹힌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야구’라는 것이 문화라고 규정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문화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을 논해 보아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유형론(또는 統合體論)으로 명명될 수 있는 크로버(A. Kroeber), 베네딕트(R. Benedict) 계통의 인류학자들의 견해이며, 두 번째 입장은 맥락론

(contextualism)으로 명명될 수 있는 사피어(E. Sapir), 말리노브스키(B. Malinowski) 그리고 기어츠(C. Geertz) 등의 견해이다. 이 두 전통은 인류학이 초기의 성숙단계로 정착하기 시작하는 1910년대 말 이후 계속적인 갈등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다.

먼저 유형론(configuralism)의 입장에서 문화의 개념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전개해 보기로 하자. 유형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제반의 사건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Kroeber), 또는 심리적으로 무의식의 상태에까지 소급이 될 수 있는(Benedict), 또는 심층적인 사고의 구조에서 표출될 수 있는(Lévi-Strauss),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인 덩어리로서 문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크로버의 초유기체(superorganic), 베네딕트의 유형(pattern),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structure)의 개념들이 인간성 또는 문화의 보편적인 측면을 추구하려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통합된 이미지를 문화로 설정하고,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 또는 문법적 질서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작업을 인류학자들의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형론자들은 대체로 인간행동과 사고의 심층구조를 문화로 규정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입장은 문화를 문화로 설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동어반복이라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맥락론자들은 거대한 심층구조보다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표층적인 인간행동과 사고에서 나타나는 생활들을 문화로 규정한다. 사피어는 다양할 수 있는 가변적인(variability) 삶의 모습 속에서, 말리노브스키는 도저히 풀어 헤쳐 볼 수 없는(imponderabilia) 삶의 현상 속에서, 그리고 기어츠(그는 문화철학자인 Ernst Cassirer 1944와 Susanne Langer 1948의 영향도 받고 있다.)는 인간행동의 미묘한 차이들(subtlety)이 의미하는 상징들 속에서 문화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문화란 맥락적(contextual)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그러나 맥락론자들이 처해야 하는 끊임없는 상황들은 연구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면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리해 볼 수 있는 정도에서 머물러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상황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양자의 입장을 도식화하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에 관한 이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상당한 깊이를 갖고 있는 바다를 생각해 보자. 심층구조의 측면을 문화로 생각하는 유형론자들은 심해 수영인들이 되어서 바닥에 깔린 바다의 모습을 보려 할 것이고, 표층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문화로 생각하는 맥락론자들은 천해 수영인들이 되어서 물의 표면

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도의 모습 또는 부유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다. 표층의 변화가 심해지면 심층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심층에서 어떤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표층에 그 영향을 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바닷물의 현상, 또는 해류나 물온도의 대류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심층과 표층이 한 덩어리가 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층을 보는 입장과 표층을 보는 입장은 결코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형론자와 맥락론자는 문화라는 실체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두 입장을 절충이 아니라 통합하려는 또 다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해 볼 수 있다. 즉 문화를 보는 입장은 인간행동과 사고를 개념화할 수 있는 “유형의 맥락적 일습(一襲)”(a contextual set of patterns)이라는 준거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이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뿐만 아니라 필자의 견해가 결코 두 입장(類型論과 脈絡論)을 절충하려는 것이 아니고 통합 해 보려는 것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인간행동과 사고의 표현일 수 있는 사회적 교환관계로서의 호혜성(reciprocity)이란 유형은 여러 가지 맥락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그렇게 다른 맥락은 쉽사리 관찰되기도 한다.

짧은 기간 내에 보리타작을 해야 하는 농부들은 품앗이라는 제도를 메커니즘으로 하여 호혜성을 나타내 보일 것이며, 상거래를 하는 동업자는 서로 술잔을 교환해 가면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호혜성을 보일 것이며,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사는 현금 얼마를 감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뇌물의 교환관계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것이고,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은 식장의 입구에 마련된 ‘신부측’이란 팻말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그 장소에 부조를 하게 되고, 뒤이어 어떤 다른 상황에서 부조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입장이 전도되어 나타남으로써 호혜성을 보인다.

따라서 호혜성이라는 인간행동과 사고의 유형은 여러 가지 다른 맥락들의 연결체 속에서 추상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유형론자들에게 숙명적이었던 문화를 문화로 설명하게 되는 동어반복이 맥락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의 다양성을 어차피 추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념화하여 실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고 있던 맥락론자들에게는 유형과의 연결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단 문화를 보는 기본 입장을 이렇게 유형의 맥락적 일습이라는 준거틀로 개념화해 놓고 난 뒤, 어떤 연구자가 그 주어진 준거틀에 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어떤 한 부분에 의존해서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 3. 문화이해를 위한 사상적 기초

인류학이란 학문을 성립시키고 인류학을 인류학답게 형성시켜 온 사상적 기초의 대전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때 ‘전제’라고 언술한 것은 이하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演繹的 檢證 절차에 의한 증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歸納的 確證의 과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인류학이란 학문의 이해와 그 학문의 중심주제인 문화에 대한 이해는 동일한 전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들은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 이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믿는다.

#### 1) 제일성(齊一性)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간에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다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측면에 관한 대전제로서, 마음이 표현되는 방향과 방법은 다를지언정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슬픔, 기쁨, 노여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은 다를지언정 그런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라는 생각이다.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한데 그들의 습속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性相近 習相遠)는 논어의 가르침이 곧 이러한 입장이며, 18세기에 품미했던 서구의 자연법사상(구체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Human nature everywhere must be the same)이 곧바로 19세기에 인류학을 창시한 타일러(E. Tylor)의 심리적 제일성(psychic unity of mankind)과 <母權論>을 저술했던 바스티안(A. Bastian)의 기본적 사고(Elementargedanken)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꾸짖음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라는 것이 바로 심리적 제일성이라는 척도에 맞춘 표현이라고 하겠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대전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인종의 개념은 허구적인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심리적 제일성이 대전제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각기 다른 종족의 진화적인

문화발전의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고, 전파론자들은 어떤 문화특질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심리적 제일성의 관념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특정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논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박물관의 진열품들, 민속지적 보고서,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 등이 문화의 특수성을 말해 주지만 특수성들이란 것은 그 특수성들의 공통분모 또는 기저가 되는 인류문화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제일성의 개념이 잘못 적용된 결과에 의해 나타난 경우의 예가 바로 ‘미개인’들의 선논리를 얘기한 레비-브뤼 (Lévy-Bruhl)이다. 나중에는 그 스스로가 이 논의를 철회했지만, 그의 초기 주장은 어떤 사람들은 서구사람들과 같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이큐(Intelligence Quotient)라고 알려진 지능검사에 의하여 종족들의 우열을 가리려는 젠сени즘(Jensenism)에 관련된 논리적 공방이 또한 이러한 심리적 제일성의 설명을 위한 좋은 예(Jensen 1973 ; Scarr & Carter-Saltzman 1982 참조)로서, 젠сени즘은 편견에 사로잡힌 인종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21세기의 문턱에 선 지금도 아이큐를 근거로 한 인종주의는 거듭하여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들이 ‘벨 곡선’이란 책을 내어놓았다.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중산층의 아이큐가 대체로 100이상인 데 비해 대부분의 흑인빈민층은 90 미만이라는 것이다.

제일성이 논의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생물학적인 차원과 연결된 문제들이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전제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측면의 예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흔히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논한다. 성기의 모양이 다르고, 신체의 부위들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분명하게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따라서 사람은 똑같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인가? 남녀의 차이는 사실 생물학을 구성하는 몇 단계의 하위분야인 염색체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의 차이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곧 생물학 차원의 차이는 아니다.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모양새가 다른 것은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감대를 갖는 자지의 귀두부분은 보지의 음핵 부분과 유전형으로는 전혀 동일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논할 때, 쉽사리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힘의 수준에 관한 차이다. 그래서 힘이 많은 남성은 힘이 적은 여성에 대해서 군림하려 든다. 양성(兩性)간 힘의 차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발생된 것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보존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여성 쪽은 최소한 임신 기간만이라도 태아의 안전한 발육을 위해 조심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임부는 남자보다 운동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남자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최소한도 삼 백 만년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간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번식이라는 문제는 주로 여성 쪽에서 힘을 기울인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가장 힘든 일을 여성이 맡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힘든 일 때문에 행동반경이 좁아진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운동량이 많았던 것임이 분명하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지난 삼 백 만년 동안, 여성은 임신으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을 받았고, 여성이 행동제약으로 묶여 있는 만큼의 기간 동안에 남성은 더욱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결과로 오늘날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디빌딩을 하는 여성들을 보면, 힘이 세다 또는 근육이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훈련과 학습의 결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다. 그 동안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생각해 온 것은 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영향이 더 심대하다. 따라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전제를 세울 수 있다. 심리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다. 이것이 제일성의 요체다.

## 2) 상대성

앞에서 언급한 제일성은 보편적인 차원의 전제다. 보편이라는 것은 특수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마치 ‘앞’이라는 단어가 ‘뒤’라는 말의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전제가 제일성의 내용이고, 특수한 차원에서는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전제가 성립한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전제와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전제가 얼른 보면 모순 같지만, 이 두 가지 전제는 잘 결합되어 있다. 보편과 특수는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로 수렴되는 것과 같다. 상대성이라는 것의 주 내용은 인간의 특수한 차원에 대한 인식이며, 특수성의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은 다 다르다’.

어떤 문화의 요소이건 인간의 행동이건 간에 다 그러한 요소와 행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인의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文化相對主義이다. 즉 당국은 미신의 범주에 속하고 기독교의 예배절차는 고급 기성종교에 속하기 때문에, 전자는 나쁘고 후자는 좋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예배절차가 기독교 의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국은 당국이 존재하고 있는 문화복합에서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미국의 슈퍼마켓 저온실에 비닐로 싸여 있는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동아프리카 출신의 학생은 눈앞에서 공회를 위하여 도살된 쇠고기를 좋은 음식으로 간주한다.

예절바른 공손한 앉음새도 문화마다 다르다. 正坐와 胡坐를 구분하는 일본사람들은 한국식의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 폼을 호좌라고 한다. 일본 여자는 ‘꿇어’ 앉지만, 한국 여자는 두 다리를 수직교차시키는 ‘ㄴ자’의 앉음새가 정좌다. 일본사람들은 한국 여자의 앉음새에 대해서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기 때문에 두 다리를 벌린 형을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다. 한국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인의 ‘꿇어’ 앉음 자세는 야단맞는 모양이다. 온돌방에 꿇어 앉아 있는 것은 고역이고, 벌을 받는 형이다. 이렇듯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 입각한 타문화의 관찰은 끊임없는 편견의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아버지의 시체로부터 골수를 빼어먹는 뉴기니 가족들의 관행이 서구인의 눈에는 식인풍습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러한 풍습을 행하는 뉴기니의 지방에서는 그 행위가 중요한 장례절차에 속하며, 또한 그 행위에 의하여 자손은 돌아가신 분의 힘을 전승받는다. 상속차원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매우 나쁜 일, 예를 든다면 강도행위에도 적절한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주의는 타문화를 연구할 때 젖어들기 쉬운 자민족중심주의로부터 관찰자를 해방시켜 주는 필수적인 관점이다.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본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인데, ‘쳐다본다’는 행위는 사회마다 상당히 다른 이해와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미국인들과 만나서 물건을 흥정하는 종합상사의 영업 사원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국인과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 상담이라는 과정에서 ‘쳐다본다’는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은 대체로 싸움이라는 맥락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시선을 피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순간에 “저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미국에 입양간 한국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쳐다본다’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인 부모는 주의 줄 일이 있을 때, 자녀가 똑바로 쳐다보기를 원한다. 한국식의 주의 받는 자세는 주의 주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쳐다본다’는 한 가지의 행위에 개입된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 때문에, 미국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한국 어린이는 심각한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인 부모 밑에서 한국식으로 가장 공손한 자세로 야단 듣는 한국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로 낙인되고,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미국식과 한국식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상대성에 관한 논의다.

우리는 상대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앓음새와 쳐다보기 등의 행위들을 예로 들었다. 앓는다는 행위, 쳐다본다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문화라는 주장이 논의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쳐다보기와 앓음새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인간행동이지만, 그것과 연결된 또는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 상징의 덩어리는 엄청난 숫자로 후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저절로 확정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 3) 총체성

고전 논리학이나 인식론 사상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던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최근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되고 있다. 부분의 합은 전체와 동일하다는 사고(*andsum*)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사고(*transsum*) 사이의 대별이 우리의 논의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Wertheimer 1972). 앤섬(*andsum*)적 사고에 의하면 단추 열 개를 모아 놓고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는 부분의 합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들은 결코 앤섬(*andsum*)적 사고로는 설명이 되지 못한다. 흔히 인류학 특히 사회인류학을 제도적인 관점에 의하여 편의상 정치인류학, 종교인류학, 경제인류학 등으로 세분하고 있지만, 인간의 문화란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는 결코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

트로브리안드(Trobriland)섬의 쿨라(Kula)에 관련된 행위를 경제생활의 모습으로 파악한 사람은 그 행위가 포함하고 있는 의례적인 또는 정치적인 측면의 풍부성에 대해서 당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진도 하사미(珍島 下沙漢)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

는 정기시장(periodic market)은 시장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유세를 하는 정치적인 장의 기능을 갖기도 하고, 처녀 총각이 중신애비에 의해 맞선을 보는 장이 되기도 한다.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통합성 자체가 총체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류학의 범위를 보여 주는 정도를 학문 구분의 영역에 따라서 표시해 보면 더욱더 인류학적 사고로서의 총체성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사상의 근원은 헤겔 철학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는 내적 관계의 원리(principle of internal relations)가 필요한 것이지 제도적 분리주의(institutional separatism)는 역사의 구성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인문학적인 측면으로서의 인류학,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서의 인류학,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으로서의 인류학 등이 각각의 개별성이 아닌 전체의 통합성 추구 속에서 인류학의 총체적인 시각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최초로 문화의 개념을 정의했던 타일러는 유착(adhesion)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특성들의 동시적 덩어리’의 현상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문화를 조망하는 총체적 시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타일러를 인류학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근에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와는 궤를 달리 하는 통합과학(unity of science)의 관념이 거론되고, 체계적 사고(systemic thinking)의 중요성이 인류학의 주변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도 인류학적 사고가 요하는 총체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총체성을 지향하고 그 총체성의 모습을 생활세계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체계적 사고는 전남 완도(全南莞島) 남단의 자지도(者只島)에서 파악된 생태학적인 균형의 파괴현상으로 잘 설명된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계획 및 기준 등에서 마을을 몇 등급으로 나누는 범주들이 있었다. 도서 어촌을 자립마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책과 소득증대책의 하나로 선착장과 물양장 그리고 적절한 방파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민들도 자기가 사는 곳이 ‘낙후마을’라는 낙인이 찍히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자지도에서는 방파제와 선착장의 건립 계획을 세웠고, 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군(郡)에 요청하였다. 마을 자체기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산에 자생하는 후박나무의 벌채허가를 얻어서 약 2,000만원의 자체기금을 마련하였다. 정부 보조와 후박나무 52그루의 판매가격으로 마을 앞의 모래 및 자갈밭에 방파제와 선착장을 만들었다. 필자가 자지도에 접근했을 때, 산에 사태가 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사태가 난 부분이 후박나무들이 벌채된 지역의 아래쪽이라는 것을 알았

다. 후박나무의 벌채가 산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동행한 조류학자에 의하면 후박나무에 자생하는 흑비둘기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곤충학자에 의하면 사구성(沙丘性) 곤충의 종류와 숫자가 적다고 한다.

이상의 편린 지식들을 종합해서 생태계(生態系, ecosystem) 순환과정의 한 부분만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후박나무에 사는 흑비둘기는 보금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모래밭이 방파제 및 선착장으로 변하는 바람에 그들의 먹이가 될 사구성 곤충들을 잃어버렸다. 인간이 건설한 시멘트 구조물 때문에 생태계의 순환과정이 파괴된 좋은 예라 하겠다. 인간은 그 대가를 산사태로 받은 것이다. 사회경제적 부분, 산림생태적 부분, 조류생태적 부분, 해양생태적 그리고 기후, 토양 등등의 부분들은 모두 하나의 전체 체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총체성을 논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총체성이라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이다. 외국의 저명한 인류학 교과서들에서도 종종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국내 저자들이 만든 몇 가지의 교과서들에서도 그 용어가 여과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상에 대한 접근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한 주장을 거리낌없이 한 결과, 인류학이란 학문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진다. ‘총체적 접근’이라는 말은 전혀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everything is nothing)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총체적 접근이라는 용어의 답습에 신중해야 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제삼자에게 과정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총체적이라는 것은 과정을 무시하자는 제안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체적 접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총체성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 접근’이라는 무모한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 문화이해의 방법적 기초

인류학의 중심주제가 문화라는 사실과 문화이해를 위한 사상적 기초들은 논의되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방법의 문제다. 여기에 제시한 것들은 최소한이면서도 포괄적인 인류

학적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구체적인 테크닉을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인류학의 방법으로 고용되어 온 것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비교연구(comparative research)

이 문제는 인류학자가 갑이라는 문화와 을이라는 문화를 비교한다는 통문화적(cross-cultural)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자가 처한 연구자로서의 독특한 입장 때문에 발생하는 인식론적인 견지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흔히 민족학(ethnology)이라고 일컬어지는 범위의 작업으로서 이누이트(Inuit)인들의 결혼제도와 몽(Hmong)족의 결혼제도를 비교하여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하고자 하는 인류학자의 입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류학이란 학문을 시작한 타일러(Tylor)와 모르간(Morgan)으로부터 전파주의와 기능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구조주의 및 생태주의에 이르기까지 통문화적인 입장에서의 비교 연구는 통계적 기술과 컴퓨터의 도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후자는 인류학자가 이미 어떤 특정한 문화 내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타문화의 현상을 관찰하는 기본 시각 자체가 비교적인 차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이다. 비교라는 현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상호주관적인 과정이 비교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교의 개념에 대해서 깊은 천착을 요구하게 된다. 더군다나 타문화의 당지연구에 접한 인류학자는 비교에 의해서 연구에 임한 자신이 곧 연구의 대상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현상을 직시하지 않으면, 비교의 의미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비교는 본질적으로 성찰의 과정을 동반한다는 인류학적 방법론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더군다나 최근 인류학의 경향이 타문화(他文化)의 연구로부터 자문화(自文化)의 연구로 전환되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경향을 토착인류학이라고 함- 비교연구의 인식론적 측면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 문화를 들여다보는 인류학자는 그 문화 내에 뿌리깊은 기존의 질서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이 되기 어렵고, 심하면 장님의 입장이 되기 쉽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온 바이다.

밥상 앞에 앉아서 쌀밥을 먹는 한국 사람은 밥 사발을 상위에 얹어 놓고 숟가락으

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 작업을 반복함에 의해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밥 사발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먹는 일본사람들의 식사법과 비교되는 순간에, 당연시되었던 한국인의 식사 행위는 분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일본인들은 한국식 식사법에 대해서 개가 밥을 먹는 형상이라고 간주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식 식사법을 떠도는 절인의 식사 모습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각 기의 예절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자문화를 연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비판적 안목을 갖추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자문화를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장님 효과를 막자는 것이기도 하다. 자의든 타의든 토착인류학(indigenous anthropology, native anthropology)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요즘의 경향에 비추어볼 때 비교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 분명하다. 타문화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해 오던 인류학자들이 자문화연구인 토착인류학의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연유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식민주의와 문화제국주의에 반기를 든 제3세계 및 원주민 출신의 인류학자들이 자신의 문화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왜곡 해석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둘째, 서구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깊이 있게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의 경향은 첫 번째의 제3세계 인류학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인도와 콜롬비아, 타일랜드 등의 제3세계에서는 서구 인류학자들의 당지연구를 정책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당지연구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는 서구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의 현대사회를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향의 좋은 예들이 도시인류학·산업인류학·환경인류학 등의 새로운 분야들이다.

## 2) 당지연구(field research)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탁상공론이다. 다양한 경험을 구비한 사람들이 앉아서 벌이는 탁상공론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서울을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숭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더 잘안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사람의 내면에 관한 문화의 문제는 탁상공론 때문에 이해가 어렵게 된다. 탁상공론은 기본적으로 맥락을 상실한 도식화된 논의 과정과 결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인류학이란 학문으로 하여금 질적 전환을 경험하게한 장본인이 말리노브스키다. 그가 장기거주에 의한 민속지적 작업의 결과를 출판한 이래로 인류학의 내용과 이론은 큰 흐름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안락의자 인류학자(*armchair anthropologist*)란 말이다.

인류학자가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방법이 당지연구이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관찰(*observation*) 그리고 면접(*interview*)에 의해서 한 지역에서 집중적인 당지작업(當地作業, *fieldwork*)을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당지작업에 임하는 인류학자는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가능한 소규모 지역의 거주 단위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당지작업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인류학자에 대해서, 미시적인 연구단위가 거시적인 인간의 삶에 관한 논급을 하기에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는 추궁을 하는 철학자들도 있다(예를 들면, *Habermas 1973*). 그래서 인류학이란 학문은 소우주(*microcosm*)와 대우주(*macrocosm*)의 사이에 끼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언급한 사상적 기초인 제일성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당지작업에 기초를 둔 민속지들의 작성 뒤에 이어지는 거시적인 비교연구는 미시적인 접근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당지작업시에 사용하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접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연구자의 편의와 훈련과정을 돕기 위하여 핵심제보자(*key informant*)가 이용되는 수가 많다. 인류학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배움을 통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주민이면 누구나 그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민들의 생활관습을 배우는 과정은 관찰에 의존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관찰이듯이 당지 주민들의 생활에 무식한 인류학도는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배우게 된다. 면접과 관찰은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기타의 인문사회과학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인류학이 독특하게 발전시켜 온 방법이 바로 참여관찰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보기로 하자. 한국학계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나머지, 필자는 참여관찰을 단기방문확인식과 장기거주학습식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단기방문확인식이란 연구자가 짧은 기간 동안 당지를 방문하여 연구의 주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서 흔히 설문형식의 면접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장기거주학습식이란 연구자가 장기간 동안(1년 이상) 당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익히는 과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장기거주학습식에 의한 참여관찰을 논하며, 양자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글에서하기로 한다.

장기간의 체류에 의한 자료수집의 작업이란 상황이 인류학자에게 주민들의 생활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주민들의 모든 생활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인류학자에게 1년이란 당지작업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도 하다. 당지작업자는 못자리에서 모를 내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주민들의 행동을 연습에 의해 배우게 된다. 주민들의 생활관습을 배움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이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과 단순한 참여자의 입장 사이에 개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방법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제기될 수 있다.

400명 정도의 인구수를 갖고 있는 한 마을의 성격이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잘 알고, 그들의 생활방식 자체가 지극히 동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 불쑥 나타난 당지작업자는 유독 눈에 띄는 ‘직업적 이방인’(professional stranger)일 수밖에 없다. 이방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고 그 영역을 허물어야 하는지는 지극히 상황적이다. 참여의 정도에 관한 논의도 지극히 상황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발의 피해 범위를 조사한 동네 이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함께 이장을 규탄하고 군청에 진정하러 가자고 인류학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적극적인 동조를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은 필자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 대만의 당지연구시 사법기관에까지 출두하여 주민의 권익을 주장했던 갤린(B. Gallin)의 참여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당시 대만에서는 미국인에 대해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민이 그 점을 이용했다고 갤린도 진술하고 있음, Gallin 1974:239~240)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제기되는 문제는 윤리의 문제이다. 참여관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한다고 해서 참여관찰 자체가 문화이해의 방법적 기초로서 부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배움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류학자의 참여관찰이란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연구대상인 문화를 설명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직접적 사회생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을 때 인류학자는 불안해진다”라고 진술한 기어츠의 감정이입적 이해의 강조도 바로 당지작업자가 주민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시도와 동일한 맥락이다. 면접이나 관찰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주민의 입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 되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주민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자료수집의 시초에서부터 주민을 연구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면접과 관찰은 인류학적 당지작업의 핵심인 참여관찰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고려되면 적할 것이다.

문제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점이다. 아무리 연구에 능한 인류학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이 되지는 못한다. 인류학자가 참여관찰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다. 주민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과 주민의 입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류학자는 당지의 삶을 배우는 양질의 기회를 얻게 된다. 당지의 어린이가 그 곳에서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습득하고 축적한 그 문화를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하는 유일한 길은 아주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선까지 참여하고, 어느 선까지 관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황적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우연히 강간범의 혐의로 수갑을 찰 수 있었던 기회에 나는 미국 경찰의 상황을 이해해볼 욕심이 생겼다. 피해여성과의 대질에서 내가 범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미국 경찰서의 좀더 깊은 구석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여성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쉽사리 수갑으로부터 풀여날 수 있었다. 한국제 수갑보다도 미국제 수갑이 훨씬더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류학자들은 자신의 인권 또는 건강 문제까지 담보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개인이 기획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지연구(當地研究)의 경향을 연구자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세 단계의 과정이 도출될 수 있다: 서구인들이 미개·원사·농민사회를 연구하던 단계, 토착인류학의 수행단계, 그리고 제3세계 인류학자들이 서구사회를 연구하는 단계. 앞으로 전개될 토착인류학의 방향은 미래에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3세계의 인류학자들이 서구사회를 연구하고 그 연구 과정과 결과를 서구인들에게 제시하게

될 때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라는 방법론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 3)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당지작업의 대상이 수적으로 소규모이며,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생활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의 의미를 해독하고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인류학자는 주민들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연구자 자신이 주민들의 삶을 배워 가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느낌 등을 중요시하는 질적(質的)인 연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과학적 방법의 대명사처럼 간주되고 있는 통계적 작업은 질적인 연구와 궁극적 목적은 동일할지언정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다음의 비유를 들어서 통계적·양적 방법이 인류학적 연구의 최선책이 아님을 주장하려고 한다.

60년대와 90년대에 유행한 여자들의 미니스커트를 상정해 보자. 무릎 위 몇 cm씩 올라가는 짧은치마를 입은 당사자나 그 짧은치마를 입은 여자의 하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치마의 길이가 짧아져서 더욱더 아랫부분을 많이 보여 주고 또 보는 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보여 주는 짧은치마라고 해도 결국은 웃이고 또한 치마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한계로 인해서 어떤 부분 이상은 치마의 아랫선이 결코 올라가질 않는다. 결국 그 광경의 관찰자는 어떤 종류의 경험이나 느낌 그리고 상상력에 의해서 모종의 판단을 하고, 그 추상적인 작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게 되며, 상상력이 살맛의 원천이기도 하다.

“인류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Huizinga 1950:15)이며, “총체적인 것에 대한 신념도 어떤 종류의 상상적인 행위(시각적 또는 회화적인)의 산물이기도 하다”(Fernandez 1986:159). 결국 마음에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상상력에 있는 것이다. 문학이 성립하고 예술이 구가되는 이유의 기본 원천은 상상력이라는 저수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조상이 탄생하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기도, 종교적인 세계에 관한 환상적인 주술도 모두 상상력이라는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화의 세계다.

필자는 양적 방법이 인간의 삶에 관한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양적 방법의 장점은 전개되는 현상의 대강을 보여 줌으로써 연구자로 하여금 구조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큰 흐름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질

적 방법에 주로 의존하는 인류학자는 양화(量化)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범위를 초월한 인간의 삶을 경험해 보고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양적 방법에 궁극적인 기대를 걸지 않는다. 참여관찰에 의해 구성되는 자료의 본질이 질적(質的)인 접근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서술적(敍述的)으로 표시하게 한다. 최근에는 양적 방법의 발달로 인류학에서는 양적 접근을 보조적인 방법 또는 당지연구의 차선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질적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작업이 民俗誌(ethnography)이다. 민속지라는 것은 인류학자가 당지연구에 의해 파악한 문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며, 이 개별적인 민속지들을 근거로 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민족학(民族學)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민속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모든 인류학자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다. 마치 표준적인 소설작법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훌륭한 소설의 출현이 어렵고, 또한 훌륭한 소설의 작성에 왕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좋지 못한 민속지의 형상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대신하고자 한다.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계성이 결여된 사실과 사건들의 평면적 나열에 그친 ‘모래알들’의 껍집과 같은 형상의 민속지, 물건이나 사건들의 의도적 수집에 의하여 구성됨으로써 실제생활과 괴리를 보이는 ‘박물관’이나 ‘민속촌’과 같은 형상의 민속지, 그리고 피가 흐르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로봇트’와 같은 형상의 민속지들은 적어도 훌륭한 민속지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음말: 상상력과 개념

궁극적으로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전개한 필자는 인류학이란 학문의 범주 내에서 경험되고 축적된 논리의 대강을 소개하는 과정에 자기계발적으로 문화의 개념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입장이 복합되어 있다. **學問分野로서의 人類學**을 설명하기 보다는 인간을 이해하고 배우는 **觀點으로서의 人類學**을 제기하기 위해 문화이해의 사상적 기초와 방법적 기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유형의 맥락적 일습으로 함축될 수 있는 문화의 개념을 인류학적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였고, 문화를 보는 전통적인 두 가지의 입장 즉 유형론과 맥락론의 통합을 통해 문화와 개인이 복잡하게 혼재하는 삶의 모습을 보려

한 것이 필자가 정리한 문화이론에 관한 입장이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화는 어쩌면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가 인류학이란 학문의 분명한 연구주제 설정에 회의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가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풀어 나가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얻는 부산물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노력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지프스 신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한다.

듣기 좋은 말로 해서 경제학이 가장 몰상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면 인류학은 가장 상황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통론인 것을 볼 때, 법칙정립적(法則定立的, nomothetic)인 경향을 주장하는 과학옹호론자들은 개성서술적(個性敘述的, idiographic)인 성향이 농후한 인류학을 과학으로 취급하기를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디 법칙정립적으로만 풀이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당혹할 수밖에 없는 과학옹호론자들의 처지를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는 관점은 과학주의에만 입각할 수 없음을 직시케 한다. 그래서 인류학적 사상은 제일성, 상대성, 총체성 등의 대전제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쉽사리 개입될 수 있는 또는 개입되어 온 편견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제도적 분리주의 등을 과감히 배격하고 있다.

당지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등이 갖는 미시적이라는 약점을 보완해 주는 비교 연구 방법은 인류학이란 학문을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너를 이해하고, 나와 남과의 관계를 배우려는 관점으로서의 인류학에도 기초적인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인류학자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건 간에 이미 어떤 문화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지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주체와 객체 사이에 본질적으로 개입되어 있으면서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무시되어 온 윤리문제를 환기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참여관찰에 의하여 객체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인류학자는 인간과 인간이 누리는 삶의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는 딜레마 속에서 당지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난해성 그리고 윤리문제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학제적 연구의 수준을 넘어선 통합과학의 이념에 대한 갈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반면에, 인간소외를 포함하는 개인의 문제가 중시되고, 국가라는 단위가 인간의 생활

에 더욱 더 깊이 관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존이라는 미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학은 학문(discipline)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관점(perspective)의 차원에서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파격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 보자. 왜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가?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라면, 반드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되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사람은 생물분류법으로 볼 때 포유류에 속한다. 포유류 내에서도 영장류에 속한다. 사람이 포유류나 다른 영장류와 다른 점은 바로 문화의 문제다. 사람이라는 종(種)만이 문화를 소유하고 창조한다. 사람이라는 종 특유의 현상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종들의 행위와 표현들은 생물학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에 의한 지배 이외에 문화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나는 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다. 내가 아무리 잘 생겼다고 해도, 나 스스로 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나는 나의 눈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다. 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는 거울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나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 나를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 것이다. 莊子(內篇, 齊物論二)에 이르기를, “非彼無我, 非我無所取(상대가 없으면 자기라는 것이 없고, 자기가 없으면 갖가지 감정도 나타날 데가 없다)”라고 했다. 이때 나는 물리적인 현상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나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다.

내가 베트남의 농촌에서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가를 참여관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알기 위함이다. 나 스스로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남을 본다. 남을 보다 보면, 남의 배면(背面)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의 다른 남을 보게 되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보편적인 인간이 특수한 나를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 남이 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이 문화를 주제로 하는 인류학적 인간 연구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다.

천년을 사는 거북이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천년을 산다

는 주목나무가 상상력의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는 종은 상상력을 갖고 그것을 발휘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상상력을 문화라는 개념으로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개념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문화의 사이에 내재하는 과학적인 추상화의 과정이다. 상상력에 관한 능력이 있는 만큼 사람은 개념에 대해서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概念밖에 없다. 개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혼자서 도(道)를 닦든지, 아니면 남을 통한 문화(文化)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면목을 발휘하는 인간 차원의 질문이다.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중의 하나가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文化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과제다. 이 질문은 의미상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하나는 문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론론이다. 문화론과 문화론론은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나는 주로 후자에 매달리면서 전자를 바라만 보는 해바라기 역을 담당하였다. 전자는 大質問(big question: Susan Langer의 표현)이고, 후자는 소질문이다. 소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사이엔가 대질문을 하게되는 시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양에서 질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학문과정이라고 생각한다.

溫故而知新的의 자세로서 선학들의 논고를 먼저 존중하고, 선학들의 머릿장백이 위를 덮고 올라설 수 있는 개념의 예봉을 베풀어야 하는 과정을 밟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학문과정이다. 그 과정을 나는 “論”이라고 했다. 문화는 학문과정의 목적이다(문화론). 문화론은 그 과정의 수단에 불과하다(문화론론). 나의 논의는 “文化”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기에는 아직도 약함이 있기에 중도의 수단으로 문화론“論”(본고의 제목에서는 序說이라고 한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문화론에 대한 생각으로 일단락을 짓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도 이 둘 사이를 혼동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독자의 질정을 또한 바란다.

# 실크로드 미술문화

권 영 필(상지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예종 교수)

중앙아시아가 근세에 이르러 열강들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래, 1 세기가 넘도록 줄곧 세계의 지식인들은 이 지역의 미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많은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사유와 미적 관념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가 동서문화의 교류를 원활케 했음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이 주변의 강한 문화의 압박 속에서도 자기 색깔을 만들면서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패권주의의 불식이라는 넘어서야 할 우리 의식의 지평이 이 실크로드미술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1.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는 옛 장안에서 출발하여 서쪽의 로마에까지 이르는 길을 일컫는다. 이는 한나라 때의 비단이 서역을 거쳐 서방으로 수출되었던 데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주지 하듯이 근세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 von Richthofen)은 1869-72년에 걸쳐 중국의 지리를 조사한 후, 그의 저서 『시나(China)』에서 처음으로 이 명칭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역이었던 독일의 호이네부르크에서 중국제 비단이 발굴된 사례를 보면 이 명칭의 역사성을 짐작하게 된다.

장안에서 로마까지 수만리 여정에 달하는 이 길을 통해 동서의 문물이 오갔으며, 그 길의 심장부에 중앙아시아가 놓여있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서 보더라도 실크로드의 중심임에 틀림없다. 이 중앙아시아는 옛



<동쪽의 장안에서 서쪽의 로마에까지 이르는 실크로드 지도>

서역(협지의 서역), 즉 오늘의 신강성이 주축이 되며, 거기에 남러시아의 카작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지역까지 포함해서 일컬어지기도 한다.

한편 리히트호펜의 명명 이후 서구의 학자들은 실크로드의 문화교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 길을 확대해석하기에 이른다. 즉 본래 장

안에서 시작하여 서방으로 가는 사막의 길 외에 시베리아 남쪽의 초원(스텝)의 길, 지중해로부터 인도해안을 거쳐 남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양의 길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과급영역은 동쪽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중국의 장안을 실크로드에로의 기점, 또는 종착점으로 생각하나 예컨대 경주의 고분발굴 유품들을 보면 그것이 “동쪽에 핀 실크로드의 꽃”임을 이내 알 수 있다. 실크로드로 들어가는 하서회랑의 초입에 위치한 란주박물관 전시실에 걸려있는 지도에는 실제로 실크로드의 간선을 동쪽의 경주에까지 연장시켜 그려넣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신라가 단순히 실크로드 문화를 흡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대재생산했다는 점일 것이다.

## 2. 스키타이와 흉노

스키타이는 기원전 8세기 경 흑해연안에서 발흥한 유목족이라는 것이 그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근년의 러시아 고고학계는 스키타이가 본시 동쪽의 알타이지역에서 기원전 9세기경에 기원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출토유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과 인골의 유전자감식법에 의한 결과이다. 이로써 스키타이와 고대 한국문화와의 관련설은 한층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스키타이 문화는 알타이에서 흉노와 접촉하면서 남하하며, 북중국의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연결된다. 이 스키타-흉노 초원문화의 특징은 대체로 샤머니즘, ‘동물양식미술’, 생활용기인 동복(銅鍔, 일종의 가마솥) 등 세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또한 쿠

르간이라고 하는 대형고분(적석목곽분)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전·후기초원문화’ 시대에도 나타난다.

‘동물양식미술’은 러시아 학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스키타이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간두식(竿頭飾)의 머리에도 동물형상을 부착하였으며, 혁대장식이나 장신구들도 동물 모티프로 제작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동물의 사지를 중심으로 모으고 몸을 둥글게 만듦으로써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와함께 ‘동물투쟁’의 모티프 역시 수세기 동안 유행을 보였다. 이러한 동물표현은 동북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필자는 이것을 ‘렌투스 -느리게 변하는- 양식’으로 명명한 바 있다.

### 3. 문명의 중간지대

문명교류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토착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스키타이의 초기 미술에서 그리스 이오니아로부터 받은 정주적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스키타이 미술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동물미술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다라전파(前派), 즉 간다라의 토착조형이 중요하듯이, 중앙아시아에 있어서도 헬레니즘과 중국의 조형이 밀려오기 이전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된다. 천산북쪽에서 출토된 <청동무사상>은 기원전 500년경의 작품으로는 믿기우지 않을 정도의 조형적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다소 투박한 느낌이 없지않으나 인체조형의 캐논을 준수하고 있고 안면에는 표정이 살아있다. 이 조각상은 중앙아시아가 동서의 고도로 발달된 조형을 흡수, 소화해낼 능력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4. 오아시스의 소왕국들

기원전 2세기 한의 무제는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여(기원전 139-126년) 서방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장건은 오늘날의 아프카니스탄 북부까지 진출하였으니 그의 거사는 사서가 말하듯 서방으로의 길을 뚫은 ‘착공(鑿空)’이라고 할만하다. 점차 중국은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소왕국들을 복속시켜 그 지역을 한의 문화로 적셔나간다.

『한서』는 서역에 36국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점차 분화되어 50여

국이 되었다고도 밝히고 있다. 천산과 곤륜의 산록에 위치한 이 소왕국들은 이란·아리안계로서 사막지대의 카레즈-또는 가나트-라고하는 특수관계시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정주적인 성격의 족속들이다. 농사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경제력을 돋우어준 것은 동서교역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소왕국들은 한의 도호지역이긴 하지만, 발굴 유품들을 분석하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곧 찾아내게 된다. 서역남도의 호탄어, 서역북도의 쿠차어 등과 같은 고유언어의 개발은 타문화의 간섭에 대한 자기보호의 능력을 보여주며, 복식과 거기에 수반된 문양 등 생활미술의 양식은 매우 독자적임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종교는 교역과 함께 중앙아시아 미술 발달에 두 기둥의 기능을 한다. 기원전에 이미 불교가 상인들의 왕래를 통해 이곳에 입수되었다. 불상과 벽화로 대변되는 불교미술은 더 이상 종교미술의 범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는 동서의 많은 문화적이고, 미학적인 요소들이 녹아내려 표현된다. 불상의 보관(寶冠)에 이란의 왕공 귀족의 두식(頭飾)이 첨가된다든가, 사천왕상의 복식에 헤라클레스의 상징물이 부착된다든가, 벽화에 표현된 말각조정이 불교적 우주표현의 중심 역할을 한다든가하는 등등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5. 땅속의 미술보고, 땅위의 천연 박물관.

중앙아시아 유적의 발굴과 탐사는 20세기초 서구 열강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스펜 헤딘을 비롯, 영국의 오렐 스타인, 프랑스의 폴 펠리오, 독일의 알베르트 그륀베델, 알베르트 폰 르콕, 일본의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탐사 후 보고서를 출간하긴했어도 발굴 자체가 체계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건 열강의 탐사대들이 발굴한 막대한 양의 유물들은 현재 세계각지의 박물관들에 전시되어 있다. 부리티쉬 박물관, 파리의 기메 박물관, 베를린의 민속박물관, 스웨덴의 헤딘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비롯, 당사국인 중국의 신강성 박물관, 신강성 고고학연구소,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동경 박물관 등등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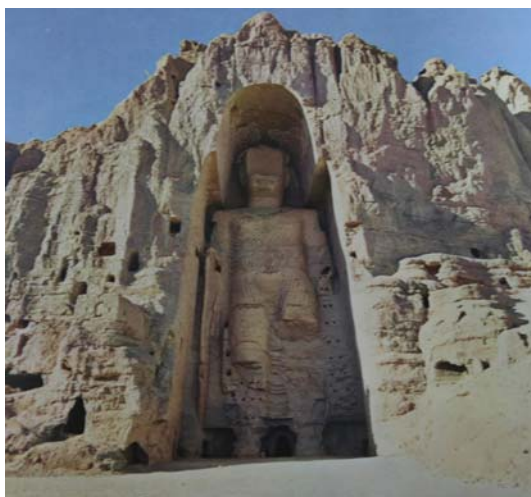
발굴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나 양상은 그 때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국의 유적과 유물의 보호를 전제로 실시되며, 과학적인 첨단장비가 도입되는 것이

다. 러시아팀의 스키타이 지역 발굴, 중국·프랑스 공동팀의 니야 유적발굴, 돈황연구소와 미국의 폴 게티재단과의 공동조사 등은 세계 학계의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다.

땅 속에서 발굴된 유물과는 달리, 땅 위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의 주축은 석굴사원의 불상과 벽화들이다.

## 바미안 유적

서역 불상 중에 압권은 바미안 석굴의 대불상이다. 높이가 각각 53미터와 38미터나 되는 두구의 불상은 바위 절벽을 굴착하여 만든 감실에 안치된 것인데, 소위 스테코 기법으로 조각의 외면을 마무리한 후기 간다라 양식(4-5세기)의 걸작이다. 그런데 이 불상들은 안타깝게도 몇 년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폭거로 무참히 파괴되어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 남기고 있다.



〈바미안 대불〉, 4-5세기,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이러한 대불상의 전통은 동점하여 키질석굴, 돈황석굴을 거쳐 하서회랑으로 들어간다. 하서회랑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든다면, 돈황석굴 96호 굴의 대불(33미터)을 비롯하여 천제산 대불(15미터), 병령사 대불(27미터) 등을 꼽을 수 있다. 내륙의 운강석굴과 용문석굴에 이르면 초기 대불의 둔중한 괴량감은 여전하지만, 어딘가 인체의 건강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조각적으로 정돈된 면모를 보인다. 거슬러 올라가 바미안 대불을 위대한 불성의 반영이라는 종교적 관점을 떠나 조각으로서만 본다면 그것은 인류가 최초로 시도한 거대한 괴체에 대한 실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허탄유적

파미르 고원의 동쪽을 넘어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접어들면 카슈가르를 기점으로

서역남북도가 타원형으로 전개된다. 남도의 허탄(옛명칭: 우전[于阗])은 신강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서방의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다. 이 지역의 산푸라에서 출토된, 중앙아시아 제작일 것으로 추정되는 <반인반마상(半人半馬像)과 무사상 모직벽걸이>(기원전 2세기-기원후 2세기)에는 서양 신화의 존재인 켄타우루스가 등장하여 일찍이 파급된 헬레니즘의 흔적을 감지하게 된다.

근년에 발굴된 불교사원의 벽화는 이른 것이 3세기를 상회하여 서역북도의 것보다 빠른 시기임을 알게 된다. 가사에서 빠져나온 손이 가슴 중앙에 머무는 도상과 함께 안면의 표현도 독특하여 지역적 특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 지방의 벽화는 석굴벽화가 아니고, 사막가운데의 평지에 있는 사원벽화들이다. 20세기초에 스타인의 발굴을 통해 사원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근년에는 신강성의 고고학연구소가 발굴을 계속해 사원의 구조와 벽화의 특징들을 밝혀내고 있다. 예컨대 쿠물라바트 사원의 벽화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일종의 패넬화처럼 판에 그림을 그려 벽에 부착시키는 방식이다.

## 미란유적

서역남도를 동진하면 타림분지의 동남쪽에서 미란을 만나게 된다. 은성했던 옛문화의 흔적이 이곳의 벽화 단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20세기초에 영국의 스타인(A. Stein)이 발굴한 벽화편들에는 페르샤계의 인상을 가진 공양자상들이 등장하며, 또한 상반신의 이 인물상들의 하부에는 갈랜드(garland)가 표현되어 있어서 서방문화의 파급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갈랜드는 로마 석관에 부조로 장식되는 화환형식으로서 간다라 부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더욱이 스타인 컬렉션의 또 다른 벽화에는 ‘타타’(Tita)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는 티투스라고 하는 서방의 인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서방에서 온 순회화가집단의 작품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이들 벽화의 연대가 3세기 중엽경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은 서쪽의 허탄 지역의 문화와 연대적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쨌든 이처럼 중국에 가까운 지역에까지 그레코-로망의 물결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흥미 이상의 일이다.

## 키질 석굴

서역북도의 미술 센터는 쿠차이다. 쿠차 시내에서 2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키질석굴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236개소인데, 오래된 석굴은 4세기 전후로 편년된다. 1970년대에 시행한 북경대학의 수바이(宿白) 교수팀의 탄소동화법에 따르면 그 연대는  $360 \pm 80$ 으로 편년되는데, 현재까지는 학계에서 이 연대관을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앞에 설명한 허탄과 미란의 벽화들이 사막의 평지에 있는 사원벽화임에 반해서, 이 키질의 것은 절벽을 뚫어 만든 석굴사원의 벽화이다. 석굴의 내부구조는 대개 정방형으로 사방 3미터 내외의 크기이다. 이 공간의 중앙에 사각기둥을 두어 내부를 회랑처럼 만들어 ‘탐돌이 예배(Pradakṣiṇā)’하게 하는 형식이다.

내부 공간에는 바닥을 제외하고 전부 벽화로 장식된다. 이 벽화의 구도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연속 마름모꼴의 소위 ‘능형구획도’이다. 각각의 구획 속에 천불도, 또는 변상도를 그려 넣는다. 무엇보다도 이 벽화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인체표현에 구현된 서방적인 명암법이다. 인체묘사에서 윤곽선 위에 다시 주황색, 분홍색 등의 밝은 색조를 가함으로써 입체적인 효과를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해부학적인 표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간취된다. 이런 모습은 초기석굴인 제47호 벽화에서 두드러진다.

‘조의출수(曹衣出水)’는 북제 때에 중국화단에서 활동했던 조중달의 화법이다. 물에 빠진 사람의 옷처럼 몸에 밀착된 의습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조중달은 북부 이란 지역의 소그드 출신으로 그의 화법이 키질석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175호(6세기) 벽화의 인체묘사가 그것이다. 세밀한 선묘의 옷주름이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 베제클리크 석굴

베제클리크 석굴이 알려진 것은 20세기초 독일 탐사대에 의해서이다. 석굴 뒤쪽의 모래산이 흘러내려 매몰된 채로 방치되었던 석굴을 ‘발굴’하고, 그 속의 벽화를 톱으로 절취하였다. 이것들은 지금 베를린의 인도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 오타니 탐사대도 이 벽화의 주요부분을 반출하여 교토 박물관으로 가져갔으며, 그중 일부가 현재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대(唐代)의 위구르족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므로 벽화의 중심연대는 당대(618-906)가 되며 그 하한은 원대 초기까지로 내려간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

의 태반은 9세기 전후의 것들이다. 베를린 소장품으로는 베제클리크 특유의 도상인 서원화(誓願畵)를 대표로 위구르 왕자상, 왕녀상 등이 유명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남녀 공양자상은 묘사수법, 채색, 보존상태 등의 관점에서 회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 돈황 벽화

돈황석굴은 총 700여개나 되는데, 현대 벽화가 있는 정비된 석굴의 수만 해도 무려 493개소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석굴사원의 벽화의 면적을 루블 박물관의 전시면적과 비교하는 미술사학자도 있다. 또한 최대 규모의 자연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이 도 있다. 이들 석굴들은 366년에 첫 석굴이 개착된 이래 근 천여년동안 계속적으로 조영되었다.

실크로드로 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기에 인도를 오가는 구법승들은 이 석굴을 거쳐갔던 것이다. 400년경에 법현이 그러하였고, 현장도 인도로부터의 귀로에 그곳을 들렀던 것이다. 103호굴(8세기 전반)의 벽화에는 코끼리에 불



〈P.펠리오의 유물조사〉, 돈황석굴 17호.

경을 가득싣고 돌아오는 현장의 모습이 사실적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17호굴에서 발견되었던 사실도 이러한 경위를 말해주는 것이다.

돈황벽화의 내용에 대해 돈황연구원의 원장을 지낸 두안웬체(段文傑)씨는 7가지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불교경전의 도해인 변상도를 주축으로 하며, 그밖에 역사, 설화, 신화 등의 요소와 함께 외래 문물의 표현 등 다양하다. 대체로 수당대 이전의 필법은 서역법으로 묘사되어 동서교류의 상황이 이 벽화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8세기 전반기의 작품, 예컨대 103굴 동벽의 유마거사상에는 성당기의 사실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역강한 필치의 오도자의 필법을 보는 듯 한 걸작이다.



세천상, 북주 6세기 중엽, 둔황석굴 290호.

1908년에 펠리오가 찍은 사진을 보면 둔황석굴과 그 주변은 황폐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은 1940년대까지도 여전하였다. 빠리에서 화가로서 활약하던 창슈홍(常書鴻)씨는 1936년 빠리에서 열린 펠리오의 둔황전시회를

보고는 감격과 충격에 휩싸여 바로 그해에 그의 프랑스 부인과 함께 둔황으로 달려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43년 국립둔황예술연구소를 설립, 초대 원장으로 일하면서 둔황석굴 보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둔황석굴이 오늘의 모습으로 유지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덕분인 것이다.

## 하서회랑

하서회랑은 만년설이 덮인 기련산과 고비사막 사이에 마치 복도처럼 생긴 길로서 외래문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다. 북쪽의 둔황에서 시작하여 주천, 장액, 무위, 그리고 감숙성의 성도인 난주에 이른다. 따라서 둔황을 ‘인후(咽喉)’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호 16국시대에는 인도인을 비롯한 서방인들의 내왕이 빈번하여 문화적으로도 중국과 서역의 중계지의 역할을 하였다. 근년에 서방의 중요한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특히 주천 근처에서 발굴된 <은제 12궁도 접시>는 동로마 제품으로 당시의 교류상황을 잘 전해준다.



## 장안의 호풍

당 문화의 전성기인 8세기 때에 유행했던 페르샤와 소그드 문물을 호풍(胡風)이라고 부른다. 사산왕조와는 북위시대부터 내왕을 하였지만, 특히 사산왕조가 망한 후, 그 유이민이 당으로 몰려옴으로써 호풍을 부채질 하였다. 음식, 포도주, 복식 등의 생활 문화를 비롯, 음악, 미술 등 예술분야에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당의 시성 이백은 「소년행」이라는 시에서 “오릉의 젊음이 은안장의 백마를 타고 봄바람에 낙화를 즈려밟고 어디로 가려는가. 호희가 있는 주점으로 미소지으며 들어가 누나”라고 읊조렸다.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사산왕조의 대표적인 문양인 연주문이 크게 유행했으며, 덧붙여 당의 예술가들이 인체의 풍만형을 선호하게 된 것도 이 유행의 물결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 참고문헌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2004(초판1997).

권영필, 『렌투스 양식의 미술』, 사계절 2002.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2001.

김호동, 『황하에서 천산까지』, 사계절 1999.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長澤和俊 (민병훈 역), 『동서문화의 교류』, 민족문화사 1991.

# 인류문명과 예술

우 성 주 (전주대학교 교수)

인류가 언제부터, 지구의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인류가 최초의 흔적을 보였다는 보고(報告)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이 되는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우린 누구이며 우리의 원조상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회피할 순 없을 것이다. 19세기 천문학의 발전과 함께 갈릴레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며 인류의 인식은 술렁였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도 더불어 시작되었다. 결국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지구의 생태계나 생명의 시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해졌고, 인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류 문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린 남겨진 여러 이미지와 문자를 통해 과거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인류학자와 고고학자, 역사학자, 고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의 도움으로 과거 깊이 묻혀 있던 인류 문명의 여명기를 묘사하기에 이르렀다.

## 1. 예술적 표현의 등장

인류문명의 거대한 바다에는 예술의 상징과 이미지가 시·공간적인 차별에 의해 빈번하게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오랜 역사 동안 되풀이 하는 것을 보아왔다.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긴 문화·예술의 흔적들은 각 지역별 기후 및 지형적 조건과 더불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적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와 공간에 따라 남겨진 문화의 구성요소 안에는 신화와 전설, 종교,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의 다양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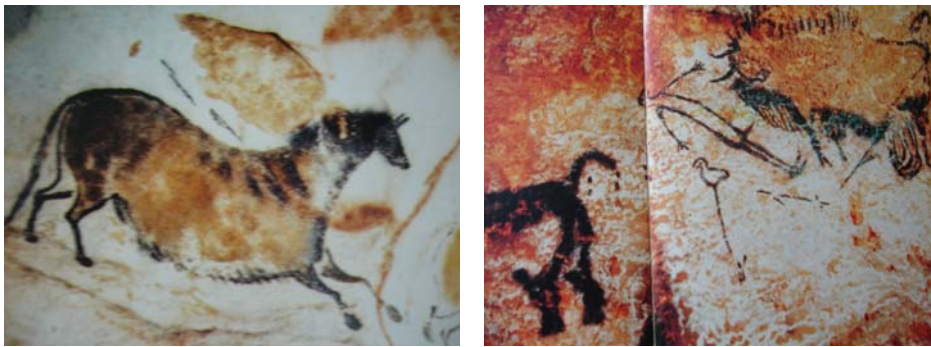
술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신화, 전설 및 종교와 철학, 정치, 경제 등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창작과 감상을 포함한 예술은 문화의 알맹이로서 다른 생물군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차별적 모습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인간의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에 첨가되는 알파( $\alpha$ )에 의해 자신의 감성과 메시지를 이미지와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라 할 수 있다.

## 1) 구석기 동굴벽화: 라스코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의 이미지는 구석기인들이 표현하려 했던 메시지와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들소와 새 형태의 가면, 사람 형태 이미지가 가득한 라스코벽화는 묘사된 그림들이 삶과 죽음을 에워싼 의식과 의례를 위한 상징적 재현인지, 장식적 표현 욕구에 의한 예술적 표현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람이 던진 긴 창끝으로 창자가 늘어진 채 피 흘리며 죽어가는 들소와 그 앞에 사지를 뻗고 누워있는 남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원을 알리는 숫대 형태의 새 가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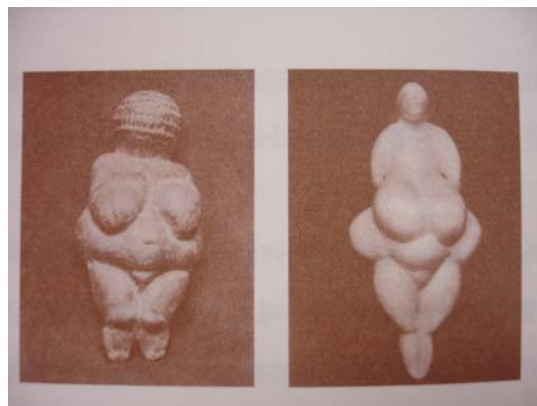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의 이미지는 문자가 탄생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과 사고를 담게 되는 문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인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냥감으로서의 동물을 그려놓은 것이라 믿었던 과거의 해석은 수정되고 있다. 수렵시대에 흔한 먹잇감이었던 작은 동물과 벌레, 야생 열매를 배제하고, 감당할 수 없던 큰 동물들을 동굴 주요 부분에 묘사한 것은 분명 사냥에 대한 염원은 아닐 것이다. 큰 동물이 지닌 힘과 초월적 기운을 통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직관에 대한 종교적 의례와 의식에 관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동물숭배와 정령신앙과 유사한 형태의 초보적 종교성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불명확한 여러 가설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구석기인들이 대상을 묘사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대상이 지닌 의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부장품으로 발견되곤 하는 동물 뼈에 새겨진 장식적 문양들과 함께 구석기인들이 ‘표현하려는 장식적 욕구’를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인간이 지닌 본능으로서의 묘사와 예술적 표현의 욕구와 관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라 했다. 동물과 인간의 행동과 동작이 지닌 그 무엇을 모방하려는 본능은 그가 [시학]에서 지적하듯 예술·문화의 발생 및 발달 요인으로서의 원인이며,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문화와 예술을 형성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 2)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구석기인들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을 통해 우린 그들의 감정과 정서, 인식과 사회적 변화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기원전 25,000년경 빌렌도르프의 구석기 비너스의 모습은 출산에 임박한 만삭 여인의 몸이다. 구석기 시대 동·서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발견된 이러한 형태의 여인상은 수렵인의 생활상과 삶의 패턴에 따른 가치관을 알려주고 있다. 늘씬한 현대 미인의 모습과 대조되는 풍만한 여성의 몸은 삶의 질과 안정을 향상시켜주는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임신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부권이 강화되기 이전인 모계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및 배경(background)이 예술적 표현 욕구에 의해 드러나며, 임신한 여성은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다. 미(美)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 2. 고대문명의 발달: 필론의 세계 7대 불가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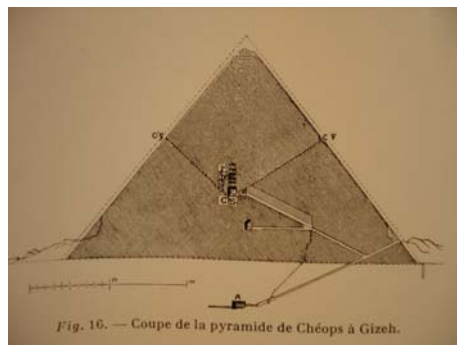
1633년 뵈시우스 대사는 비잔틴의 필론이 쓴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대한 귀중한 원고 여섯 장을 발견하였다. 불가사의에 포함될 수 있는 기념물을 7개로 한정된 것은 7이 피타고라스가 거론한 완벽한 숫자였으며, 기원전 6세기 당시 신성한 숫자였기 때문이다. 1개의 항성(태양)과 6개의 행성(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을 합한 숫자였던 7은 우주를 의미했던 것이다.

### 1)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정원

기원전 823년에서 810년까지 바빌론을 통치했던 삼시 아다드 5세의 왕비인 ‘사무라마’로 여겨지는 세미라미스가 설계한 공중정원은 실제로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계단식 아파트의 발코니에 꽃과 커다란 나무들을 심은 것과 유사한데, 관계시설이 핵심이다.

### 2) 쿠푸 왕의 대 피라미드

천체창과 황금비율로 유명한 대 피라미드는 쿠푸 왕에 의해 건설되었다. 피라미드의 규모는 남(230.45m), 동(230.39m), 서(230.36m), 북(230.24m), 높이(146.60m), 기울기( $51^{\circ}52'$ )에 달하며, 2.5t의 바위 230만개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7만 톤에 육박한다. 지배자의 사후 거주지로 설계된 피라미드는 수많은 전설과 도굴의 원천이 되었다.



### 3) 로도스 섬의 청동상

기원전 360년에서 350년 사이 조각가 사테 드 린도스는 그리스 로도스 섬에 34m에 달하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거상을 건설하였다. 거대한 청동 거상의 제작을 둘러싼 온갖 억측과 가설은 고대문명의 제작기술에 대한 현대인의 경탄을 자아낸다. 2.5m 두께의 34m의 주물제작을 둘러싼 놀라움은 고대인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집중된다.

### 4) 제우스 신상

아테네의 유명한 조각가인 피디아스가 기원전 470년경 제작한 제우스 신상은 높이 13m에 달하는 거대한 조각상으로서 크리세레환틴 방식(나무에 상아와 금을 입히는 장식)으로 8여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제우스상은 높이가 90cm, 길이 10m, 폭 6.65m 크기의 받침대 위 옥좌에 앉아 있는데, 만약 제우스를 서있는 형태로 조각했다면 거의 18m나 달하는 거인이었다. 신들의 고향인 올림푸스 산의 지배자로서 제우스의 권위가 잘 표현된 예술 작품이다. 거대한 크기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피디아스는 제우스의 신성한 위엄과 너그러움을 완벽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들었다.

### 5)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며, 최초의 대리석 신전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높이 18m의 기둥 127개를 수직축으로 하며, 길이 120m, 폭 60m의 수평축으로 구성된 초대형 건축물이다. 현대인에게조차 위압감을 주는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가 69m, 폭 30m, 높이 10m 정도이며, 대리석 기둥을 58개 사용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전의 자재는 가장 아름답고 순도 높은 백색 대리석만을 사용했으며, 중앙의 넓은 홀에 네 방향으로 대리석 계단을 달고 올라갈 수 있게 했다. 사냥의 여신이며, 달로 상징되는 아르테미스는 여성의 임신과 관계되며, 이는 여성성에 대한 예술표현의 상징이다.

## 6) 파로스의 등대

기원전 280년 무렵 건축가 디노크라테스가 건설한 파로스의 등대는 높이가 100m에 달하였으니, 그 규모는 오늘날 30층 건물과 비교될 수 있다. 등대는 기원전 3세기에 세워져 14세기까지 운영되었으며, 796년에 3층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자 술탄 이븐 툴룬이 돛식의 모스크를 세웠으며, 956년 지진으로 전체 높이가 22m 정도 줄었고, 1100년 다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등대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 7) 모솔레움의 영묘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모솔레움의 영묘는 페르시아 제국 카리아의 태수 모솔 왕을 위해 그리스의 할리카르나소스(현재 보드뤼)에 건조된 무덤이다. 가로 32m 세로 38m의 바닥면 위에 높이가 거의 50m에 이르는 모솔레움의 영묘는 그 웅장한 규모로 유명했다. 강력한 지배자였던 모솔 왕은 생전에 자신을 위한 무덤을 착공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아르테미스 왕비가 계속 진행했으나, 실제로 완성된 시기는 그녀가 사망한 후인 기원전 350년경으로 추측된다. 모솔레움의 영묘가 유명한 이유는 우선 그 규모에 있지만, 무엇보다 1층의 36개 기둥 안에 설치된 높은 예술적 가치의 조각들이 드러내는 묘사의 정교함에 있다.

2008년도 상반기 은하문화학교Ⅱ 강의 자료집  
〈 I 부 인류문명의 발달〉

---

기획진행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교육팀  
편 집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교육팀

발행인 최 광 식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140-026)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TEL / (02)2077-9000 FAX / (02)2077-9300

인쇄 2008년 3월  
인쇄처 크리홍보주식회사  
(110-040)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2 신영빌딩

---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